



마귀를

대적하라

데이빗리 목사

홀리타임즈

마귀를 대적하라

데이빗리 목사



목 차

CONTENTS

- 제 1 장 축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7
- 제 2 장 마귀의 정체 19
- 제 3 장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37
- 제 4 장 마귀 공격의 실체 59
- 제 5 장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법 90
- 제 6 장 지금은마귀와의전쟁이다 116
- 제 7 장 귀신의 정체 138
- 제 8 장 귀신의 침투 157
- 제 9 장 귀신의 활동 241
- 제 10 장 귀신의 공격 4단계 252
- 제 11 장 질병과 귀신과의 관계 259
- 제 12 장 주님은 어떻게 축사하셨나? 266
- 제 13 장 성령의 불로 축사하라 280
- 제 14 장 주님의 보혈로 축사하라 289
- 제 15 장 축사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299
- 제 16 장 효과적인 축사사역 방법 308
- 제 17 장 귀신의 영향 측정표 319

〈머릿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가정도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나라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신 것일까요? 고통을 극복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고통 가운데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고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마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하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뜻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런 마귀의 역할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마귀는 춤을 추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이 마귀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것은 마귀에 대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힘과 능력을 부여하셨건만 오히려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마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마귀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를 물리칠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가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결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군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욱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장수를 집중해서 공격하듯이 마귀도 그리스도인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계교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책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마귀의 활동을 막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계교를 막을 수 있으며 조금도 우리에게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해 나와 나의 가정이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 책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2018년 8월 15일 아틀란타에서
데이빗리 목사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라





1 장

/

축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회 내에서 가장 잘못 인식된 사역 중의 하나는 '축사사역'입니다. 축사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축사사역을 마치 귀신의 역사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축사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며 축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쫓아 내야 할 귀신은 쫓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 잡는 사역자를 쫓아내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축사사역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축사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기도 하고 교회 내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지도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신도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축사사역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사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했습니다.

"[마 12:24]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오늘날 교회에서 축사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의 하나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 내는 사람이 귀신에 붙잡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무당이 잡귀신을 불러오게 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는 것처럼 축사사역자들을 무당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12:25]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 12:26]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 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 내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인데 오히려 스스로 분쟁함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할리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것은 서로 분쟁하는 것으로써 마귀가 그 일을 가만히 놔둘리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믿는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저들끼리 대적하거나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축사사역자를 귀신에게 씌어서 축사사역을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귀신도 서로 분쟁하지 않는데 믿는 자끼리 분쟁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귀신도 서로 싸우고 서로 쫓아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믿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형제를 쫓아내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결코 서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교회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축사사역을 꺼려하고 축사사역자가 교회에 발 붙힐 틈조차 허용하지 않는 교회에는 귀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지도자의 생각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존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가장 거룩한 곳에도 존재합니

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도 그곳에는 귀신이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더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셨을 때 귀신은 더욱 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 4: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욥 1: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한 때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하신 곳에 버젓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일단 마귀는 귀신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사역을 돕는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듯이 마귀

는 귀신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뤄나갑니다. 귀신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를 공격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격합니다. 저들이 믿지 않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믿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이 존재하는 한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성령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 몸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전에 침투합니다.

이렇듯 귀신이 우리 몸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은 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 원인을 결코 귀신과 연관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가 귀신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와 질병의 상당한 부분이 귀신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누구도 귀신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와 질병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연약한 자와 질병결린 자를 치유하셨을 때 상당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려 그렇게 되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귀신에 대해 잘 알고 계셨으며 귀신을 대적하는 방법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이처럼 귀신에 의해 연약하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귀신에 의해 연약하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전혀 귀신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교회에는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얼마든지 귀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단에서 자라고 장로교단 목사로 안수를 받으며 장로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자라면서 교회 내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목사님조차도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결하고 어딘지 모르게 장로교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하면 당신은 저의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누군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

위기를 알고 있는 교회지도자는 당연히 '귀신'에 대해 조금도 언급하지 않으며 누군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귀신이 어디있느냐?"며 오히려 호통을 치고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래된 시절에 기형적으로 태어난 자녀를 집안에 숨겨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한 질병이 걸린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병원에서 치료하기보다는 남들이 알 것을 두려워하여 집안에 가둬두고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의 문제를 남이 알면 저 자신이 부끄럽게 되고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을 꺼려하여 오히려 문제가 있는 가족을 집안에 숨겨둬야만 했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교회내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남들이 알면 오히려 교회 성장에 방해될 것을 두려워해서 교회 내에 '귀신'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귀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귀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솔직하게 "그렇네요"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당신의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축사사역의 시작이기때문입니다.

당신은 '귀신'에 대해 알지 못했기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다. 당신도 손해를 봤지만 당신의 교회 또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 편이 아니라 적군 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가 아니라 마귀를 위한 자입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가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교회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라면 분명히 마귀는 당신의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이 전혀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교회에 귀신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의 교회는 귀신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그럴 교회가 어딘들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어찌 귀신이 당신 교회를 남몰라 하고 외면하겠습니까? 귀신이 외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 외면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귀신이 접근하기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귀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귀신 따위는 내게
얼씬도 못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러운 것이 더 잘 묻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상
시에 늘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은 지저분한 것이 좀 더 묻는다 할지
라도 잘 모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조금만
더러운 것이 묻어도 금새 표시가 납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수
도 없이 많은 귀신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너무
나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쉽
게 알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거린다면 당신도
이미 저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은 그냥 하
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어딴어요? 나는 한번도 귀신을 만나보지
못했는걸요?"라며 귀신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귀신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만났으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둑놈이 수도 없이 당신 집을 들락거렸지만 한번도 당신이 그 사
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수도 없이 도둑이 들락거렸지
만 한번도 그 도둑놈을 만나지 못했기때문에 "우리 집은 도둑이 안
들어와!"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귀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도 귀신과
상관이 있으셨습니다. 귀신의 하는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마 8:29]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 스스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귀신의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모든 주위 사람들이 들었겠지만 만일 영적인 대화를 나누셨다면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나는 귀신과 상관이 없어!"라고 말합니까? 비록 당신이 귀신을 한번도 만나지 못했거나 대화를 한번도 나누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 주변에는 이미 귀신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과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도 마찬가지며 당신의 회사와 당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귀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귀신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당신이 누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당신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말에 조금이라도 긍정의 뜻을 보인다면 당신이 귀신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기억하

십시오. 그런다음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뭔가를 행동하십시오. 당신 교회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귀신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글들을 통해 귀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미 예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권세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귀신을 압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졌으며 어떻게 그 권세를 활용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는 그 어떠한 귀신도 당신을 침범하지 못하고 당신의 교회 또한 안전케 해 주는 것입니다.



2 장

/

마귀의
정체

손

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사정을 알고 있고 또 나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 백번을 싸워도 백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만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늘날의 마귀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계 12: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은 곧 ‘옛 뱀’입니다. 그리고 그 ‘옛 뱀’은 곧 ‘마귀’이며 ‘사단’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리켜 ‘용(dragon)’이라고 표현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라는 다소 상징적인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짐승인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신화에서 악마를 가리킬 때 주로 ‘용’이나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내어 떨어질 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의 세력들도 마귀와 함께 내어 쫓겨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였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한 언급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 났는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교만’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비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죄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같은 위치에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마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듯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얼마나 높았으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는 마음을 가졌을까

요.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무서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점을 뽐내고 자랑하면서 날마다 커져가는 교만이 하나님께지도 무시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이사야는 마귀를 가리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사 14:12)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별(Morning Star)을 뜻합니다. 이것의 라틴어가 루시퍼(Lucifer)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사역자인 릭조이너가 인도하는 사역단체 이름이 바로 ‘모닝스타(morning star)’입니다. 이처럼 계명성이라는 이름은 매우 귀중한 존재를 알리는 이름이요 새벽별처럼 밝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계명성이라고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계 22:16)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새벽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새벽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새벽별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누구라도 멸망시킨다

이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를 향하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 14:12)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마귀를 향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은 마귀가 참으로 아름답고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천사였지만 그의 인생은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사 14:11)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오게 된 마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잘못된 원인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잘못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신 스스로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타인이요 환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되었을

거야”라고 말하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잘 되었을텐데”라고 즐겨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귀 스스로 하나님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끝났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 갔음이라”(계 12:12)고 마귀의 현재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후

마귀의 최후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붙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
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
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
이리라"

주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붙잡아 천년동안 무저
갱 속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을 잠귀 인봉하고
다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년동
안 마귀는 아무런 힘도 없이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를
갈며 분노를 참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저갱에 갇혀 있는 마귀는 조금도 자신의 죄를 회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귀의 존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잠시 무저갱
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는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불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계 20:7-8)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파하시고 “또 저희
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계 20:10) 던져지게 될 것입
니다. 유황 못에는 마귀 뿐만 아니라 마귀를 섬겨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계 20:10)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삶은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마귀 또한 삼위일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짐승과 거짓선지자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습니다. 마귀는 짐승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계 19:20)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의 관계를 형성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 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마귀도 똑같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 사역을 하시지만, 삼위일체 마귀는 인간의 구원을 망가뜨리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으시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것처럼, 짐승도 마귀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계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사역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소위 '짜퉁'이라고 불리우는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짜퉁인 아름다운 술집여자를 진품인 아내와 자리를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건네주는 모조품을 진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두 가짜 여자와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귀의 모조품이 진품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성도는 이단시비에 걸리고 마녀 사냥감이 되어서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사업처로 삼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존경받는 교회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더러운 곳이지만 오히려 사탄은 더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러운 세상으로 달려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모조품을 가지고 진품을 대신하게 합니다.

온 천하를 피는 자

마귀는 이 땅에서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이용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욕'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혀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욕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

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정욕'을 많이 추구하며 성취한 사람들을 가장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정욕'을 추구하며 살 때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의 이러한 '정욕'을 통한 유혹은 매우 자극적이며 보기에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당했을 때 그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웠으며 탐스러웠던 것입니다.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귀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

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니라"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속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결국 그 '욕심'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담을 죄를 짓게 하였을 때 아담은 불사불멸의 몸에서 필사필멸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화된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죽임을 당하도록 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꾀임에 빠진 자는 그 '정욕'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 죄는 사망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고 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시면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막아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욕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욕이 그렇게 큰 고난을 겪은 것은 마귀가 했지

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1:1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세상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요한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추악한 행위를 참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입니다. 저들을 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저갱에서 천년동안 지내야 할 것입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

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짐승의 표

이처럼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파괴하기 위해 뛰어난 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마귀가 상대할 분이 아니심을 마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상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항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세상에서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의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계 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
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때가 되면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계 13:16)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계 13:17)가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살 수도 없으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이 참된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를 사람과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출현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나 준비 자세를 갖추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시대에 홍수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주에 대해 어리석은 것이라고 조롱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말씀은 일점일획이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짐승은 이미 이 세상에 있으며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3)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 24:7-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마 24:9)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마 24:10) 할 것입니다. 이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

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워할 우리를 생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3 장

/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 이 말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친구를 닮기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 하는 친구와 사귀면 자연스레 공부를 잘 하게 되지만 공부를 못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공부를 잘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처럼 친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믿음이 달라집니다. 좋은 목사를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지만 나쁜 목사를 만나면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세례를 받게 되며 그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재하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전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마귀와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마귀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와 친구내지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을 했습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지고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면 위 구절을 더 확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 ‘불법’ ‘어두움’ ‘벨리알’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의 관계와도 같아서 도무지 함께 멍에를 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믿는 사람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 살아야하지 않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구를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안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본인이 될 것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안믿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은 전도뿐입니다. 안믿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안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을 목적으로 만난다거나 기타 세상적인 관심과 유익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마귀의 백성과 어울리는 법이 아닙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이 땅에 떨어짐을 당한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공격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자신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러한 계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펼치고 있는 계락을 안다면 그 누구도 마귀의 계락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계락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여간해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마귀의 공략에 넘어진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마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나눴을 때 그가 마귀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남편외의 또 다른 사람이나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죄악이 전혀 없는 에덴동산에서 자신을 유혹할 마귀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마귀를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와는 마귀를 만났고 마귀는 하와를 공략했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공략할 때 사용했던 것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며, 탐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녀의 마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

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 3:6)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 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왜 하와가 마귀의 공략에 넘어 갔을까요? 마귀가 뛰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와가 어리석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뛰어난 자임은 사실이지만 하와 역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던 영적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을 친히 다스렸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짐승들과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사람이었으며 만물을 다스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던 하와와 아담이 마귀의 공략에 미혹을 받아 에덴동산에서 쫓겨 났던 것은 다른 아닌 마귀와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처음 마귀를 만났을 때 낯선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창 3:1)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한 두마디 말을 건넌 후에는 그 즉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며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렇지 못했으며 마귀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말았습니다.

뱀의 형상을 띤 마귀는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창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
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
라 하시더냐"

마귀가 하와에게 질문했던 말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
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자신의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역시 자신
의 질문이 틀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질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하와를 공략하기 위해서 절대적
으로 필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계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하와는 아무런 생각없이
마귀가 던진 질문에 답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대화로 인해 엄청난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했던 말을 보십시오.

"[창 3: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
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 3: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와의 말을 통해서 하
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와의 말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말았으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처참하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육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광야로 나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모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잘못했던 가장 큰 것은, 마귀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와는 마귀가 어떤 자인 것을 가장 먼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절대로 대화를 나누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어떤 자인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대화까지 나누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이것 때문에 하와의 인생이 그렇게 변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마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어떤 자이고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공략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귀에게 KO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자인가를 알지 못할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마귀와 대화를 나눠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귀와 대화하는 것의 실체

저는 마귀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마귀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마귀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교회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임했습니다. 아직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성가대 지휘도 하고 청년부까지 맡았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설교를 시켰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면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주 저희 가족을 초대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담임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사람들로 부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담임목사보다 제가 더 잘난 줄로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사람들과 함께 담임목사님에 대한 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눈치 챈 담임목사님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한 날 저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부교역자들이 그런 식으로 쫓겨났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아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옆친데 덤친 격으로 담임목사님이 여교역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처녀였던 여교역자가 수치를 무릎쓰고 양심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교역자는 노회에까지 나가서라도 밝히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였고 그 문제로 인해 더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교인들은 교인전체모임을 갖고 여교역자의 양심선언을 교인들 앞에서 공개하고 담임목사님의 비리를 들춰내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그 모임에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저는 도저히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왕을 공격하지 않았듯이 전도사가 어찌 담임목사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지역에서는 개척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처음에 맹세했던 서약대로 곧바로 그 지역을 떠나 차로 3-4일 걸리는 거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끝까지 담임목사 편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멀리 떠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마음 속에는 그 담임목사님에 대한 죄의식이 짙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그 담임목사님께 사죄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담임목사님께 지은 죄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담임목사님을 헐뜯는 대화에 동

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지금껏 워킹 위드바이블을 이끌어 온 지금까지도 마귀와의 대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 남편도 원수로 변하고 아내도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 사랑스런 자식이 원수로 변합니다.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도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마귀와 대화를 나누면 사랑하는 친구도 한 순간에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 보십시오. 저들의 성격이 매우 거칠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화보다는 강압적인 면이 엿보입니다. 무슨 말을 할지라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철없는 사춘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마귀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죽이지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

람들까지 죽게 만듭니다. 가롯유다를 기억하십니까?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게 하고선 자신도 목매달고 죽었습니다.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략합니다.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육신의 공략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가득차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눅 22:3]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란 말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사탄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것은 유다가 마음의 문을 열어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도록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마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통으로 들어갑니다. 몰래 담장을 넘어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아

니면 땅굴을 파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씁니다. 마귀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넣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막 14:10)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마 27:3) 자신의 죄를 회개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마귀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마귀에게 자신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열린 저들의 문을 통해 마귀의 생각들을 집어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깨닫

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었더니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막 14:11]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던 제자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자로 정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고요? 천만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11제자들에게 보이신 사랑을 똑 같이 유다에게 전하셨습니다. 어쩌면 가롯 유다를 더 총애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롯유다는 재정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수 천명에서 수 만명에 달했을 것입니다. 매일 사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위해 필요한 사역자금은 굉장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빨래며 음식이며 사람들 접대며 여러가지 봉사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사역일을 위해 재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직무였을 것입니다. 바로 가롯 유다가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롯 유다가 스승을 배반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사

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은 삼십세겔에 스승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제게 좋을뻔 하였으니라”(마 26:24)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어났고 마귀의 생각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양 착각하고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하찮은 돈 때문에 팔아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으로 인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절대로 가롯 유다처럼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선 안됩니다. 가롯 유다에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듯이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나타나 스승에 대해 욕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담임목사님에 대해 욕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직장 상사에 대해 험담을 늘어 놓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마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가롯 유다는 위대한 성인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우연찮게 들었고 그렇게 말한 사람과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으며 마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은 주님을 향해 열려야 하고 천국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마귀를 향해 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에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금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행했던 똑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략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 2:16)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자세히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라는 말

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성경말씀으로 단호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사람들은 성경말씀으로 마귀의 공략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마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대화를 나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경말씀으로 단호하게 하실 말씀만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선호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성경말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성경말씀에 쫓겨진 대로 따라야 합니다.

두번째 사탄의 공격과 세번째 사탄의 공격에도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말씀을 가지고 대응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께서서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마 4:7)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귀가 성경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마 4: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께 건넨 말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 91:11]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

91:12]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하자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성경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성경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양 그릇되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단학설이 만들어지고 이단집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려는데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악용이며 남용인 것입니다.

마귀는 최후의 수단으로 “만일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마음의 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성경말씀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즉시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아셨습니다. 오직 성경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말한대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는 말씀이 옳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 역시 미련한 방법입니다. 미련한 방법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양념 바른 치킨을 선사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점수를 확보한 뒤에 곧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일단 마음의 문이 열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그 즉시 악한 말을 던집니다.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술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마귀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길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 준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어느정도 호기심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가면 호기심이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급기야 마귀는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마음을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룟유다처럼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니다. 몇 마디 말을 듣고는 바로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끊어 버립니다.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마귀는 떠나고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킨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경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듯이 이 사람들도 성경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니다. 오로지 성경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워킹위드바이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워킹위드바이블에서 내세우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성경말씀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믿습니니다.”입니다. 그 어떤 예언의 말씀이나 보여지는 환상이 성경말씀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사역을 진행할 때에도 성경말씀과 위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워킹위드바이블을 인도하면서 반장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을 반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들의 권위를 존중해 왔습니니다. 하지만 저들의 가르침 중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 드러날 때에는 아주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성령님으로부터 들은 예언의 말씀을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드리고서는 마치 그것이 성경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저 역시 워킹위드바이블을 인도하는 리더자로서 항상 성경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성경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환상을 봤다고 할지라도 성경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심지어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성령님 그 말씀에 맞는 성경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합당한 성경구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경말씀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야 마귀가 우리에게서 틈을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공략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4 장

/

마귀 공격의 실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 또한 영적인 존재이며 귀신들 모두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사도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경고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마귀의 공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이 말한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공격이 아주 깊숙히 스며들어와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낱낱히 파헤쳐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오감(five senses)을 통해 느껴지는 정욕입니다. 육신의 오감은 '보는 것(sight)' '듣는 것(hear)' '냄새를 맡는 것(smell)' '맛을 보는 것(taste)' '느끼는 것(touch)'입니다. 보는 것은 눈을 통해 얻어집니다. 듣는 것은 귀를 통해 얻어집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코를 통해 얻어집니다. 맛을 보는 것은 입과 혀를 통해 얻어집니다.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몸을 통해 얻어집니다. 마귀는 우리의 오감을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오감을 통해 죄를 범하게 됩니다.

1. 우리는 보는 것(시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누드 사진을 본다거나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은 충분히 육신의 정욕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충분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친구가 좋은 집을 사면 그것으로 인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한 TV나 영화를 통해서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었기때문에 마귀가 펼쳐놓은 텃으로부터 자유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보는 것'으로 인해 마귀의 유혹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제 아들녀석이 일곱 살 때 일입니다. 응접실과 마주하고 있는 곳에 미닫이 문으로 된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녀석이 미닫이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아내가 문을 슬그머니 열었더니 그 조그마한 아들녀석이 야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녀석은 우리 부부에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컸을 때 저는 자주 아들들에게 "너희들 야한 영상 보느냐?"고 편하게 묻습니다.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묻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새 거짓말을 합니다. 큰 아들녀석은 그때 일곱 살 때 혼이 난 이후로는 안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정확한 말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홀로 방에 거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반드시 컴퓨터를 한

곳에 모아 놓습니다. 아이들이 한 곳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짓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죄를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녀석은 자기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저는 "너의 일곱 살 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컴퓨터가 네 방에 있으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좋지 않은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이해하라"고 말을 해 줍니다.

또한 잠을 잘 때는 반드시 방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집 원칙입니다. 저희 부부도 방문을 닫지 않습니다. 모든 방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 부부가 침실에서 은밀히 나누는 대화를 자녀들이 고스란히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서 피해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잠을 자기때문에 저들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주 훈련자들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응접실에 놓아라"고 당부합니다. 반드시 부모가 컴퓨터를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녀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어느정도는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정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책을 읽음으로써 사상이 변질되거나 생각이 옳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좋은 도서를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책은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 외에 가지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한 때는 일주일에 두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니다. 그렇기에 소장한 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모든 책을 다 치웠습니다. 어느 교회에 기증을 해 버렸습니다. 비싸게 구입한 성경주석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석조차도 성경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모든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책을 지나치게 좋아하다보니 성경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또한 우리는 듣는 것(청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흥분된 소리만 들어도 그와 관련된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야릇한 소리에도 자극을 받지만 소름끼치는 소리에도 자극을 받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접근할 때 내뱉는 속삭이는 달콤한 말도 얼마든지 당신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TV 소리를 막으십시오. 특히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세상의 정욕을 불러 일으키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심을 부추기거나 승부욕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며 경박하게 만들고 진심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보다는 우스갯스러운 속된 말들이 오히려 인정받도록 만듭니다.

요즘 영화를 보면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뉴에이지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인본주의적인 영화를 보면 신본주의적인 성향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지만 요즘 영화들이 인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비록 신이라도 인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재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들이 죽을 때 짐승에겐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 거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혼은 오직 땅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이 마치 인간처럼 말을 하고 문화를 이루고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화는 어린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경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어린자녀들이 뉴에이지적인 영화에 물들어 있음을 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어린자녀들이 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뉴에이지적인 영화를 만드는 영화제작자들 역시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자신들의 영화가 얼마나 악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마귀의 도움을 받

아 그런 더러운 영화를 만드는데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담화나 속된 말들, 특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음모나 술수를 꾸미거나 계락을 세우는 악한 일들과 말을 피하고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떠나야 할 것이다. 친구의 음담패설을 듣지 마십시오. 경건치 못한 모든 대화에서 떠나십시오. 이사야는 우리보고 "귀를 막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는 자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 33:15]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사 33: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 우리는 냄새 맡는 것(후각)을 통해 죄를 짓습니다.

냄새를 통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게 됩니다. 야릇한 향기를 맡게 되면 그와 연관된 신경세포가 유혹을 받게 되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후각은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오는 분자들이 냄새를 담고 있어서 그것들이 비강 점막에 닿았을 때 녹아집니다. 그러면 비강점막에 있는 수용기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수용기세포는 대략 500만개 정도나 되는데 이들은 섬모를 가지고 있어서 냄새정보를 뇌에 보내게 됩니다.

후각신경은 후각세포에서 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직접 받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호를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신경회로에 하나씩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냄새는 기억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억보다 냄새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다른 시각이나 청각보다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작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통해 우리의 정욕을 불러 일으킵니다.

특히 특정한 냄새가 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특정한 냄새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여인이 사용하는 향수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에게서 그와 똑같은 냄새를 맡게 되면 예전에 불륜을 기억하게 되고 또 다시 불륜을 일으키고 싶은 정욕이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냄새로 통해 마귀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각세포는 끊임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마귀는 더욱 냄새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맛을 보는 것(미각)을 통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 또한 맛을 보는 것과 연관된 유혹입니다. 술병을 보기만 해도 맛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가 아닐지라도 다른 음식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육신의 정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약은 어린 자녀들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술이나 담배처럼 마약 또한 중독성이 심하여서 마약에 중독이 되면 웬만해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특히 마약은 더욱 우리의 심신을 중독증에 빠지게 합니다.

술이나 마약이 중독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중독자는 술 외에 다른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자기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육적인 정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음란이나 도박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마약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중독도 음란이나 도박같은 죄를 불러옵니다.

또한 냄새처럼 어떤 특정한 음식도 예전의 특정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을 취할 때 그 맛이 이전의 지은 죄와 연관된 추억이라면 그 사람은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미각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를 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5. 또한 느끼는 것(촉각)을 통해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뭔가를 만질 때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몸을 만져줄 때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자극체입니다. 조금만 건드림을 받아도 자극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몸을 자극할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모든 유혹이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육신의 정욕을 공격합니다.

촉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남는 감각입니다. 시각이나 청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며 후각이나 미각보다 더 길게 남습니다. 사람은 촉각에 의해 타인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할 때 상대방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 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는 엄마의 따스한 손길을 접할 때 사랑을 배웁니다. 엄마의 손길을 통해 헌신을 배우고 평생토록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도 육신의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으로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찾아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도록 유혹했습니다. 만일 이브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브는 마귀의 꾀임에 빠졌고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변해 버렸습니다.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는 예수께도 이런 육신의 정욕을 불러 일으켜 유혹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굶주림을 느끼셨을 때 돌을 가져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고 유혹했습니다. 가뜩이나 굶주려서 배고픔을 느끼셨을 예수께 이러한 유혹은 상당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밝히시며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셨습니다.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안목의 정욕

마귀의 두번째 공격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

의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는 '지적인 능력' 혹은 '인식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Intellect'로 표현합니다. '정'은 '감정(emotion)'을 말합니다. 또한 '의'는 '의지(viliton)'를 말합니다. 마귀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의 실체를 바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 지적인 능력에 대한 공격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알다(know)'란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이해한다(understand)'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안다'란 단어와 '이해하다'란 단어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구분없이 <기노스코>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노스코>의 뜻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는 인식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적인 능력'에 대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고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식(knowledge)'이 '이해(understand)'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식으로 깨달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오히려 성경을 지식 쌓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추구하듯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책하셨습니다.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

는 것이로다 [요 5: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영생얻기 위해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건만 어찌하여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단순히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매일 몇 장씩 읽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던 것입니다. 마치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구제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제가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구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지적인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사람의 방법으로 드립니다.

"[사 29: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전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통은 지극히 육적인 것이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전통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지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마귀는 이미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점령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할 뿐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우리들의 가정을 세상의 지식으로 채웠고 자녀들까지 세상의 지식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이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집어 넣을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더 많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지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마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아가는 것이 사라지도록 세상의 지식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2. 감정에 대한 공격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고갈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며 강제로 막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감정에 변화를 주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4:6]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말은 단순히 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와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의 뜻은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서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기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고갈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엔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지금껏 남아있음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고갈되었다면 아마도 지금쯤 하나님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계속적으로 충만했기때문에 하나님아버지와의 관계는 매우 강력한 관계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마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음을 알게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생역경을 통해서도 마귀는 나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고갈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도 없어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생각에 허망한 생각이 가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질책하였습니다.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
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
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감정을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의 감정이 허망하여지고 미
련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면
서도 감정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감
정을 사로잡아 어느정도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감
정을 메마르게 하고 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것도 마
귀 짓입니다. 이웃에 대한 감정이 메마르게 되는 것도 마귀 짓이며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는 것도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것입니
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마
치 감정이 메마른 사람처럼 만들어갑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정(情)'을 심습니다. '정'은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 실체를 드러다 보면 오히려 좋지 않는 것일수 있습니
다. 물론 '정'이 좋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이 매우 깊숙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 인간적이며 다소 혼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정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훨씬 영적인 것입니다. 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는 하나님을 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으로 섬기는 것
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정'이란 인간의 혼적
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으니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 인간 관계에 '정'을 심습니다.정이 한번 싹트게 되고 자라면 그 누구라도 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것처럼 정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정때문에 부부가 살고 정때문에 친구가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때문에 죄를 용납해주고 정때문에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훨씬 옳은 것이며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단호히 벌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 모든 인간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실 정도로 사랑하셨지만 모든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으로 다스렸다면 노아의 홍수도 없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때문에 결코 죄를 간과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기 보다는 정때문에 어쩔수없이 형제를 용서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구제하기 보다는 정으로 형제를 구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희석시킵니다.

3. 의지에 대한 마귀의 공격

의지는 뭔가를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Will'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will 보다 더 행위적인 표현은 'volition'입니다. volition은 will의 행위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ll은 어떤 것을 행하려는 의지를 말하지만 volition은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의지를 말하기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지를 가로 막습니다. 마음에 원이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바울도 마귀의 공격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에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마귀로 인해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롬 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롬 7:20]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롬 7: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처럼 마귀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나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청년과 대화를 통해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 19:20]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 19: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마 19: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부자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청년은 재물이 많은 연고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부자청년의 예화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에 있습니다. 부자청년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재물이 문제입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재물이 너무 없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렸으면 바울이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재물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어도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도록 환경을 제

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재물을 사랑할 수 있으나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일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주님도 잃고 영생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재물과 함께 다른 여러가지 것들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물이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결심한 부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한 마음보다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기때문입니다. 자녀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부모의 마음에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자녀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살아가겠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배우자도 주님보다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든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때문에 당신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금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마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인도했던 성전 꼭대기는 헤롯성전이었습니다. 헤롯성전은 암벽 위에 세워진 것으로 성전꼭대기에서부터 계곡 골짜기까지의 높이는 자그마치 1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보호하여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볼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존경하고 칭찬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정욕으로부터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고전 15: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이 죽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맙니다. 이브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듯이 우리도 정욕대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불타오를 때 세상의 영광이 화려해 보입니다. 좋은 집이 있어야 하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안목의 정욕이 채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옷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남편의 승진, 자녀의 출세는 빼놓을 수 없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고 천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더라도 우리의 영은 천국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은 우리가 정에도 존재하고 나 자신에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거하

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세상의 정욕에 취해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 중의 하나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자랑거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 될 만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편의 승진이나 자녀의 출세는 충분한 이생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도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이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화려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큰 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

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실제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못들은척 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처럼 발뺌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하여 저들로 하여금 환하게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나아가 "가로되 만일 내게 옳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고 유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주관자들이 그렇게 마귀와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권력을 쥐었고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세계사에 나타난 수많은 악한권력자는 모두 마귀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계사에 굵직한 이름을 남긴 악한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는 백성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백성을 사랑하며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받습니다.

비단 교회지도자 뿐만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들도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 한 가정을 어둠의 가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진 부모들은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에 사로잡혀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버리거나 자녀들의 탈선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생의 자랑을 손에 쥐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갑니다. 한번 '이생의 자랑'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도저히 잊지 못할 맛이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맛을 맛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
기라 하였느니라"



5장

/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법

“목사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는 어느 전도사님의 부인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졌어요!”

남편이 온데 간데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아서 회사로 전화해보니 회사에 서는 이미 오래 전에 퇴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 여쭙봤습니다. 도대체 그 전도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도사가 카지노에서 레벨을 잡아 당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환상을 본대로 사모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내 그 인간을~~~” 라면서 화를 마구 냈습니다. “다시는 안 간다고 해 놓고는 또 갔구나!”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1 시간 정도 후에 다시 그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을 찾았습니다.”

카지노에서 남편을 찾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하는 영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간

음하는 영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귀에게 묶임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악한 영에게 묶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 또한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서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막

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통로를 마귀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빨대(straw)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컵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컵에는 물이 있습니다. 다른 컵에는 오렌지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빨대를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고 오렌지즙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물을 마실 때는 오직 물 밖에는 못 마십니다. 하지만 물 컵에서 빨대를 오렌지즙스가 담긴 컵으로 옮긴다면 당신은 그때부터 오렌지즙스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물과 오렌지즙스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는 결코 마귀는 당신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마귀는 당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holy spirit)께서는 오직 우리의 영과 교류를 나누십니다.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는 악한 영과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과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교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성(castle)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면 성 밖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 안에 들어가면 성 밖에 있는 마귀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엡 6:18)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시’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always)’을 말하며 ‘언제든지(anytime)’을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성령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판 곳에 있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한 두 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당신이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당신의 꿈 속에서도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

입니다.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시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당신을 책망하십시오. 약간의 동행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교만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엡 4: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항상 틈을 공격합니다. 커다란 구멍을 찾지도 않습니다. 커다란 구멍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커다란 구멍을 가진 사람은 이미 마귀의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그렇다할 흥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마귀는 틈을 찾습니다.

틈은 작은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아주 적절한 틈이 될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엡 4:26)” 마귀는 당신이 화를 낼 때

“얼씨구나~”하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화(anger)’를 자제하십시오. 당신 배우자에게 품고 있는 분노를 없애십시오. 증오심을 버리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모든 당신의 분노는 마귀에게 당신을 공격할 적절한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 일에 바쁘게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다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신을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바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 소리 마세요. 당신 스스로 선택한 ‘바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바쁘게 살기를 원했고 당신 스스로 바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을 즐겨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당신으로부터 틈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 하십시오. 바쁨으로부터 탈출하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왜 당신은 육적인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나요? 몸이 바쁘다고 해서 당신의 영까지도 바빠야 하는가요? 비록 당신의 몸이 바쁘다고 해서 당신의 영까지도 바빠야 한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당신은 자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바쁨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몸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당신의 영은 육적인 바쁨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을 좋아하셔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한 계획입니까? 십중팔구 당신의 계획은 세상을 위한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계획을 누가 제공한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당신에게 세상을 좋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권세자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4: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또한 마귀는 당신에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마음도 틈이 됩니다. 가끔씩 사역자들이 제게 “목사님, 사역을 쉬고 싶습니다.”라고 말해 옵니다. 그러면서 “쉬면서 성령님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언

뜻 들으면 납득이 가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는 벌써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보이는 사역자의 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뒤로 후퇴하는 사람을 싫어 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8)” 그러니 절대로 쉬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쉼을 주는 것은 주님이 십니다. 사역을 쉰다고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을 통해 마귀로부터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면에 전해오는 고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당신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당신에게 흘러 내립니다. 느끼십니까? 그 기름부음이 당신의 어깨에 묶여진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을 감싸고 있는 무거운 멍에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사 10:27]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처럼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시간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당신을 움아매려 하는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자유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는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노라”

“너, 이 더럽고 추악한 영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니.. 너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 시간 나는 너의 모든 공격을 대적하노라. 내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내게 뿌리노라. 너는 즉시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으면 당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선포를 통해 이뤄집니다.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선포하십시오. 더럽고 추악

한 영을 향해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은 그 즉시 당신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보혈을 뿌리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권세도 없고 우리를 제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마귀는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거한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사업터와 직장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교회에도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집안 구석구석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대문에도 뿌리시고 뒤뜰에도 뿌리십시오. 자녀들 방에도 뿌리시고 부엌에도 뿌리십시오.

배우자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자녀들이 즐겨보는 컴퓨터와TV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침대에도 뿌리시고 벽에 걸려진 포스터나 그림에도 뿌리십시오.

집안의 모든 오래된 물건들을 치우시고, 치우지 못할 경우엔 그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뿌리시고 집안에 이상한 물건을 드리지 마십시오. 남이 쓴 물건을 가져오지 마시고 반드시 쓰기 전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 정결케 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당신으로 하여금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제사장에게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레 8:30]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백성에게도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보혈이 당신 몸을 덮을 때는 그 어떠한 악한 영도 당신을 공격하지 못하며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데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대충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피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뿌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코 악한 영은 당신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당신의 성전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성전에 틈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늘 피뿌리는 의식이 있었듯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은 마귀와 영원토록 이별입니다. 아쉬운 이별이 아니라 당신에게 신명나는 삶을 허락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혈을 뿌리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쉬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에 당신의 전신갑주는 더욱 강력한 전신갑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귀의 공격을 막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막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해야 합니다. 한 순간의 틈을 허용할 때에 당신의 전신갑주 또한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바울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11)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 것입니다. 또한 능히 마귀의 꾀계를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엡 6:15]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삽니다. 재물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녀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 갑니다. 명예와 성공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특별한 악인만 행하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

배하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누구든지 우상숭배하는 자는 자손 삼 사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왜 가족들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리며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착하던 자녀가 불량배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며 문제의 무덤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런 좋지 못한 일이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우상 숭배 죄로 인해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찾아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손 삼 사대가

지 내려갑니다.

성경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더 섬긴다면 이미 당신은 우상숭배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신은 결코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2. 의의 흉배

바울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붙이다'는 헬라어 <엔뒤오>로써 '옷을 입다'를 뜻합니다. 결국 바울의 말은 '의의 흉배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righteousness)'는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적인 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는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는 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여기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세 가지 덕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의롭게 여기는 세 가지 덕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 금식 그리고 구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

루 세차레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은 하루 세차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각각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공회에서 드릴 수 있었으며 공회도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 3:1]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또한 유대인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금식은 빼놓을 수 없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일이나 금식을 하였습니다. 결국 1년에 100일 정도를 금식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금식은 두끼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조금 일찍 먹고 그 다음날 저녁식사때 밥을 먹으면 되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식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지만 일주일에 두번씩이나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음에도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때로는 20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40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에 40일 금식을 100여차례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마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마 6: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구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제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향해 회당장이 "[눅 13:14]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는 회당장이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당장도 구제를 확실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법까지 여기면서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눅 6:5]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법보다 병든자를 온전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행위가 돼버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를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행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는 덕목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의롭다 함을 받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3. 복음의 평안 신발

'평안'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의 뜻은 '평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안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의지가 포함된 평안이 아니라 완전히 평안을 유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애써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미운 사람 자체가 없는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고통 중에 애써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떠한 고통이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신을 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데오>인데 이는 '밑에 매다 (bind under)'의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발 밑에 어떤 것을 붙여서 신발과 함께 묶어 다니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원어의 뜻과 함께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엡 6:15)의 뜻은 아무런 고통이나 방해요소가 없는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고후 5: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처럼 살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가리켜 "원수"라 말하고 이웃이 나를 가리켜 "사기꾼"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신'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가 어떤 나라에 파송되어 좋지 못한 일을 행하여 대사로서 한 나라를 먹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으니 매사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은 더 이상 평안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기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기치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짓을 행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음란한 것이 될 것입니다.

4.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어떠한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여 그에게 복을 허락하시어 평탄한 길을 허락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일수록 마귀의 더욱 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치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을 소멸하고"(엡 6:16)라 표현하였습니다. '화전'은 불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냥 화살도 맞으면 죽는데 불화살은 맨화살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인 것입니다. 불화살은 독화살과 같아서 스치기만 해도 심한 상처를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있어 불화살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수무기가 있어서 불화살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방패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5. 구원의 투구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엡 6:17)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모든 어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죽음도 천국의 소망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환란도 소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마귀를 겁내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고

스란히 전이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는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투구가 없으니 각양 더러운 귀신들이 머리를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병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될 때 그 어떠한 귀신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6. 말씀의 검(성령의 검)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류탄과 같습니다. 안전핀을 뽑아 던지면 금방 터집니다. 수류탄이 터지면 죽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강력한 무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그 어떠한 귀신들도 우리에게 근접치 못합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치 칼처럼 예리하여 사람의 영혼육을 찔러 쪼갭니다. 예수

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뻗어 나가는 레이저총과 같습니다. 말씀의 총에 맞은 귀신은 구멍이 뿔 돌린채 달아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뤄집니다.

귀신들을 향해 강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실제로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누구의 몫도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의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기대치 마십시오. 당신에게 붙은 귀신은 당신이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쫓아내지 않을 때 예수

님도 그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선포함으로
쫓아낼 때 비로소 예수님도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환상 중에 나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를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
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내 말은 곧 권세있는 말이 되어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악한 귀신은 기도 중에도 나를 방해합니다. 수
없이 많은 산만한 생각들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의 약점을 들
춰내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
의 이름으로 내 쫓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항도 못한채 떠나
갔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준비가 되었
습니까? 그렇다면 입으십시오. 잠잘 때에도 벗지 마십시오. 더럽
고 추악한 죄로 전신갑주를 잃지 마십시오. 전신갑주가 날마다 성
령의 기름부으심으로 광택나게 하십시오. 집을 갹아먹는 개미처럼
당신의 전신갑주를 닳게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늘 귀신들
은 당신의 전신갑주를 벗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6장

/

지금은
마귀와의
전쟁이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중 불과 300년 정도만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볼 때 20일 동안에 하루만 전쟁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전쟁이 끊임없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끊임없는 영적전쟁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마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인간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절대적인 적은 하나님이시기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떨어진 자입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께 패하였으며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쫓김을 받을 때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다(계 12:9). 예수님도 마귀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눅 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구보다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셨으며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때문에 우리 또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 매우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다.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
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이 언급한 '씨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팔레>는 '흔들리다'
는 <팔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오직
에베소서에만 사용되었을만큼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보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
다. 말하자면 인간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금욕적인 의미로서의
나 자신과의 싸움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
을 언급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영적전쟁을 설명하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죽기아니면 살기로 상대방을 밀쳐내야만 하는 씨름을 상상하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마귀와의 영적전쟁이 얼마나
살벌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네 단계 조직

바울이 영적전쟁을 언급하면서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개념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충분히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전쟁보다 마귀의 전쟁이 훨씬 상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다음의 네 가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적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 일단 마귀의 조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정사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의 첫번째는 '정사'입니다. '정사'의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근원'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성경에도 두 군데 모두 'In the beginning'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어를 살펴봐도 창세기와 요한복음 모두 <아르케>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때문에 <레쉬트>라고 기록되었지만 <레쉬트>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르케>의 역어로 사용되었기때문에 결국 똑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이 두 구절을 병행해서 기록해 보겠습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같은 맥락에서 씌여졌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도요한이 자신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와 연결시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태초에(in the beginning)'라는 단어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시작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귀의 네 가지 조직을 언급하면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귀의 조직을 설명하면서 첫번째 단계를 '정사(아르케)'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근원의 시작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모든 근원인 '마귀'를 견주어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정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사'는 '마귀'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부여잡은 자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정욕'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을 꾀니다. 하와가 '정욕'에 이끌리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범하였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귀'를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엡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 권세

'권세'는 헬라어 <엑수시아>로써 '권력자'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나라의 권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나 각 대륙연합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권세'라는 단어에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도 포함됩니다.

마귀는 '권세'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세'는 작은 지역이나 영역이 아닌 보다 큰 지역을 의미하며 그 지역과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세력아래 놓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3. 어둠의 세상주관자들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은 각 나라와 큰 지역 권세를 사로잡는 마귀 조직에 해당됩니다. 어떤 지역에는 음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도박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범죄가 많은 지역이나 자살이 많이 자행되는 도시는 모두 특정한 마귀의 세번째 조직인 '어둠의 세상주관자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주관자가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가면 도박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도박의 영은 널리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라스베가스는 도박이라는 무기로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주관자가 있기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욱 빨

리 강하게 도박의 영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절이 많은 지역에는 절과 연관되어 우상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절이 있는 곳에는 우상과 잡신의 역사가 강하기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한국의 명산에는 각종 점쟁이와 무당이 깔려있습니다. 산이 좋다고 찾아가는 등산객들에게 점쟁이와 무당의 잡신이 스며든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명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런 점쟁이들이 있는 지역을 빨리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4. 악의 영들

바울이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을 때 복수를 사용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악의 영들'은 도처에 깔여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들은 소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은 개인에게 공격하고 침투하며 거주하여 묶임을 놓습니다. '미움의 영'이 깃든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차입니다. '절망의 영'으로 깃든 사람은 절망과 좌절하는 마음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자살의 영'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저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저들은 복잡하고도 여러가지 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조직은 치밀하고 단계적입니다. 주로 가장 먼저 활동하는 영은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의 영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다가갑니다. 저들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멀쩡한 사람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의심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려 이혼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깨뜨려 이혼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깨뜨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의심의 영은 사제간의 관계와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일단 의심의 영이 사람 안에 자리하게 되면 의심의 영은 또 다른 영을 불러 드립니다. 다음으로 들어 오는 영은 <걱정의 영>이나 <불안의 영> 혹은 <근심의 영>같은 영들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사람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다음으로 오는 영은 <슬픔의 영>입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절망의 영>이나 <고통의 영>도 함께 올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들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며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조차 발견하지 못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들에게 찾아오는 영은 <죽음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은 저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자살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도 자살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단만이 그것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옥에 갈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잡혔다면 내가 누구와 싸움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부분의 적은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이곳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나라에 속하도록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귀의 네 단계 조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권세자를 통해 각 나라를 무너뜨리며 어떻게 어둠의 통치자들을 통해 지역권세를 사로잡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순식간에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금 신상에 절하도록 명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죽
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
람이 느부갓네살의 명을 따라 금 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물론 느부
갓네살 왕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아 불
타는 풀무에 집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옷자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불에 그슬리지 않고 무사히 풀무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 깔려 있
는 마귀의 정략에 대해서도 눈치를 채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부
갓네살 왕은 마귀의 지배하에 놓였던 것입니다. 처음 그가 금 신상
꿈을 꿔올 때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직 다니엘만
이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몽했으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단 2: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단 2: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
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적어도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한낱 속국의 학자 앞에 무릎을

끓고 절한 것은 다니엘에게 절했다기 보다는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케 하신 하나님께 절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3장에서 보여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 너무나 판이한 것입니다.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시키겠다고 선포했으며 다니엘과 세친구는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만 왕 앞에 붙잡혀 왔던 것이지요. 죄목은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붙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단 3: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단 3: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9]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저가 “분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는 세 친구를 죽이려고 평소보다 7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왜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때문입니다. 마귀가 왕의 생각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일단 통치자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핍박에 못 이겨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벨론 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아래 두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통치자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니까 북한 주님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세계인의 눈을 의식해서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가 몇 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선전용에 불과할 뿐 현재 북한에서의 하나님 숭배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다 발각되면 공개처형을 당합니다.

일본은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천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황은 단순히 일본의 전통에 따른 제도입니다. 하

지만 일본사람들에 있어 천황의 위치는 우상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일본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 역시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삼자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허락한 교회이지만 가정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자교회의 헌금은 교회 스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공산당에서 지정한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침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삼자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교회가 아니고 공산당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한 나라의 통치자를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서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지역 권세를 장악함으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아데미 여신이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행 19장 후반부). 이 여신상은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는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었는데 그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160미터에다가 세로 60미터나 되어 고대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

여 들었는데 저들을 위한 숙식업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많은 수입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은감실을 만들었던 은장색 사람들이 가장 큰 돈을 벌었는데 이는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사갔기 때문입니다. 은감실은 은으로 만든 조그마한 아테미 모형을 말합니다. 은세공장자들은 바울로 인해 자신의 수입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역권세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은세공장자들은 마귀의 권세아래 놓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과학과 의학의 발달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능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전자공학으로 철따라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자만한 쌀이 생산되는가 하면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식물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 사람까지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복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 감에 따라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략인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전술은 문화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이전

까지 느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향은 대중매체입니다. TV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아날로그 문화에서 디지털 문화에 적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가리켜 <바보상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TV는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것은 사단이 의도 했던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TV에 공개했던 범죄의 내용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범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는 어린이 채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이 채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괴물이 등장하며 해괴망측하고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만이 존재합니다. TV가 처음 등장했을 무렵에 보았던 순정만화나 정서적인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화면뿐이며 사건과 사고를 과장하는 프로만이 인기를 끌 뿐입니다.

TV와 컴퓨터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 와도 자녀들은 인사하지 않습니다. TV를 보거나 게임하기에 열중할 뿐입니다. 모처럼 야외를 나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자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게임을 하고 TV를 보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는 어떤 지역에 세미나 참석차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갈 때 컴퓨터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어떤 집사의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를 켜고 화면이 열렸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포로노 그림이 화면에 떴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가 포르노를 상습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었다면 포르노 화면이 갑자기 뜰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집사가 인터넷 사용에 대해 잘 모른다면 줄지 않는 스팸메일을 통해 이미 컴퓨터가 감염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싫던 좋던 간에 집안에 마귀의 세력이 침투해 왔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너무나 막강합니다. 너무나 조직적이며 그 침투가 너무나 거셉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떠나 살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말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도요한은 이런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요일 4: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입을 열어 세상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기에 좋아합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하면서 가장 먼저 TV와 컴퓨터를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아닙니다. TV를 보지 않았으며 교회 일을 제외하고는 컴퓨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유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많아졌으며 기도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뭔가를 함께 보고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함께 대화를 하고 서로 아픈 곳을 안수해 주면서 깊은 사랑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우리 아이들도 TV와 컴퓨터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서 TV와 컴퓨터를 완전히 멀리 하게 할 순 없었습니다. 내 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선생의 웹사이트를 적어 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학교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총망라해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단어나 산수와 같은 과목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이상 컴퓨터는 게임이나 하고 이상한 것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으며 우리와 너무나 친근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집에 들렀습니다. 그 집엔 남자아이만 네 명이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 한 명이 더 많은 셈입니다. 그것도 남자 아이로만…… 네 명의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게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게임기를 말합니다. 시중 가격으로 대략 100불에서 200불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집 아이들이 각자의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놀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를 만지고 블록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그 집 아이들이 디지털로 놀았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날로그로 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자주 밖에 나갑니다. 가끔 적으면 TV와 컴퓨터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의 문화 침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문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할까 합니다.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는 “멜로디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락(rock) 음악에 찬송가 가사를 붙인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말씀도 잘하고 목회정치도 잘 하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악은 살아 있는 음률입니다. 가사가 없는 음악이지만 얼마든지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수 있으며 듣기 싫고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과 같은 웅장한 음악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말들이 뛰어 다니는 광경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단을 찬양하는 음악도 가능합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 보십시오. 가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음악엔 이미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런 음악의 영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음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청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

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요가 가사를 바꿔서 아름다운 찬송가로
변화된 것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심하지 않지만 약간의 스타일을 섞어 교회에서 찬양곡으로 만들
어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큼
은 세상의 그 어떠한 풍조나 풍습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그 어떠
한 세상의 문화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게임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예배 후에 실컷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는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과정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입니다.

“[사 14:11]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루시퍼는 비파를 잘 탔던 천상의 음악가였습니다. 비파는 모든
현악기의 근원을 말합니다. 베토벤의 그 웅장한 심포니 5번 〈운
명〉은 현악기만으로 그 웅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에는 악장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오케스트라 단이든 똑같이 1st violinist 를 악
장으로 삼습니다.

루시퍼는 음악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아래 둘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락(Rock)음악에 빠져 있습니다. 계중에는 사단송배 음악도 끼어 있습니다. 사단송배 음악이라고 하는 음악과 평범한 락음악을 함께 들어 보십시오. 두 음악이 거의 같음을 느낄 것입니다.

저의 둘째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때 내 기타를 들고 신나게 흔들어 맵니다. 물론 코드도 모릅니다. 어떻게 주법을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알고 있는듯 괴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음악 가수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입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하기 훨씬 이전에 샤워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 묻은 머리를 음악 가수처럼 세워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음악 가수의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싫어하고 아내도 싫어하는데 어떻게 음악 가수를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락음악은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7장

/

귀신의 정체

마귀는 매우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조직의 방대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마귀의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가지신 세력과 견줄만한 강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은 마귀의 세력이 전체 피조물 중 3분의 1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자신을 따르는 삼분의 일이나 되는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귀신'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이제 '귀신'의 정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귀신'을 대적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추종자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뛰어났는지 그 추종자의 수가 자그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의 삼분의 일이나 되었

습니다. 사도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 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계 1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에 있는 큰 붉은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4절에는 그 마귀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 중의 삼분의 일이 마귀에 의해 타락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꼬리"는 마귀의 꼬리를 말합니다. 마귀가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을 땅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마귀때문에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이 땅으로 쫓김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은 바 된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나 되는 무수한 천사들이 마귀에 의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도요한은 하늘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3구절 밖에는 안되지만 그 구절 속에는 하늘전쟁의 치열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계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계 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영은 없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것은 하늘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을 때 미가엘과 싸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지 않으시고 천사장 미가엘에게 마귀를 대적케 하셨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천군천사들을 대동하여 마귀의 무리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마귀군대는 미가엘군대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마귀군대가 패배한 후에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쫓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땅으로 쫓으셨습니다.

"[계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쫓김을 받을 때 그를 추종하던 영들도 함께 쫓으셨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났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마귀와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은 계속적으로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이 하늘에 있을 때에는 천사로 불려졌지만 마귀를 추종하고 난 후부터는 더 이상 천사라고 불리지 못하고 '귀신'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귀신의 역할

귀신은 여전히 마귀와 함께 합니다. 마귀를 추종하였던 하늘의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귀와 뜻을 같이 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의 역할은 마귀의 뜻을 돕는 것입니다. 마귀의 염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때문에 귀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을 '영(spirit)'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라고 표기되는데 이 <퓨뉴마>는 성령님(holy spirit)께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귀신과 성령님의 이름이 모두 똑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퓨뉴마>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만 다릅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모두 똑 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도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사람 이름처럼 '홍길동'이나 '임꺽정'과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마다 특화된 전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의 전문적인 역할은 절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귀신의 역할은 자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의 이름은 각 귀신의 역할에 따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부터 '성령님'이라고 불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헬라어 표기는 <하기오스 퓨투마>인데 여기의 언급된 <하기오스>란 단어의 뜻은 '성스러운'입니다. 다시말해 '성령'은 '성스러운 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의 이름도 '병어리 귀신' 혹은 '귀머거리 귀신'처럼 귀신의 역할에 따라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귀신이 어떠한 특화된 전문적인 역할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귀신인줄 알아야 정확한 축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어리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귀머거리 귀신아, 떠나라!"라고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는 "이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귀신아 떠나라!"고 선포해야 정확한 대처법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육신이 주어질 때입니다. 귀신을 귀신되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육신이 주어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영이기때문에 영으로 사역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영으로만 존재하면 귀신이 싸울 상대는 영적인 존재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귀신은 육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귀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육신을 갖습니다. 이처럼 귀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될 때 비로소 귀신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처럼 인간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육신을 취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마귀의 목적을 달성키 위함입니다. 귀신이 인간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마귀의 목적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귀신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엡 2: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귀신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는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를 따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귀신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기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귀는 세상을 불순종한 아들들을 양성하는 교육장 소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될 때 불순종한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일단 마귀의 전략대로 세상이라는 그물에 낚여 불순종한 아들이 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귀신이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들어갈 때에 역사를 합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헬라어 <에네르게오>인데 이는 '역사하다' 혹은 '일하다'란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들 속에 들어와 일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일하거나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업가처럼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마귀를 섬기고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가 귀신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신은 "우리의 밥"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때문에 우리에게도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할 권세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태만하거나 무관심할 경우엔 귀신의 집요한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귀신은 어떤 사물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귀신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인격이 있듯이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성품이 좋고 나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우리처럼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귀신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있으며 마귀와 밀접하게 영적으로 연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신은 육신이 없는 것만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귀신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 매우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지식은 매우 단순하며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마치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한 귀신의 감정은 어린아이의 것과 같아서 때로는 변덕이 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술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의 속셈이 매우 치사하기도 하고 유치한 것이어서 귀신의 행동을 보면 금방이라도 귀신의 속내음을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의 의지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는 달리 매우 조잡하며 쉽게 변질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고결하고 헌신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에게는 의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의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처럼 의리가 낮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 의리가 지나치게 낮은 사람은 귀신에게 묶임을 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그렇게까지 의리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킹위드바이블에서는 축사사역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귀신과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귀신과 대화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귀신과 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신중하게 축사사역을 하기 때문에 귀신과 정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엔 대화를 나눠도 그

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사사역을 많이 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 귀신과정이 들게 됩니다. 마치 내가 귀신같고 귀신이 나의 친구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사역자 스스로 귀신처럼 낮은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축사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점점 그의 지식수준이나 감정의 변화나 의지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킹위드바이블은 축사사역할 때 귀신과 대화하는 것을 조심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귀신의 정체를 밝히셨기때문에 귀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끔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눅 8: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고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축사사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 꾸짖고 나가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사사역자를 보면 귀신과 한참 대화를 나눕니다. 30분이 넘기도 하고 1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 대화가 매우 길니다. 이런 대화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죽을라고 환장을 하면 대화를 하십시오. 귀신에게 묶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알고 싶다면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다면 대화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귀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너 누구냐?"라고 간단한

말을 할 때에 귀신은 순순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어서 귀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귀신의 아버지 꼴인 마귀가 거짓말장이여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장이니까 마귀의 줄개인 귀신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처럼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때문에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장이 됩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마귀에게 속한자는 거짓말장이입니다.

귀신의 인격은 매우 치졸하며 간사하며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은 나가지 않으려고 다른 동료귀신을 나가게 합니다. 금새 화를 냈다가도 금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도대체 줏대가 없습니다. 방금 거짓말을 했어도 언제 그랬냐는듯이 매우 뻔뻔합니다. 어

린 자녀도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할 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데 귀신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만한 양심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치한 귀신들을 향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사역자들을 보면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귀신들이 뻔뻔하고 말로해서는 안 될 매우 비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재들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격도 인격나름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고귀한 것이지만 귀신의 인격은 고귀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누가 귀신의 인격을 인격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도 귀신의 인격을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는 함부로 대하셨습니다. 시끄럽게 굴 때는 "잠잠하라" 고함치셨으며 횡포를 부릴 때는 "멈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힐 때는 "나가"라고 명령하셨으며 교묘하게 거짓말로 숨으려 할 때는 "너 누구냐"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사사역의 대부분은 꾸짖는 것이었지 인격적으로 달래거나 봐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전문성

대부분의 귀신은 앞서 설명한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형편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떤 귀신은 그와 반대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귀신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신과 지식을 논하게 될 때에 당합니다. 귀신의 지식이 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귀신은 매우 사악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교묘히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악합니다. 이런 사악한 귀신들과 대화를 나누면 다른 사역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담임목사를 미워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축사사역을 하고 난 후에 부부싸움이 더 심화되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귀신의 사악함이 묻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귀신은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린 사람이 그 귀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빠져 나가는 것을 싫어하도록 그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축사사역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

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귀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워킹위드바이블은 성령의 불로 귀신의 집을 태우는 사역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불은 안수에 의해 이뤄집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저절로 귀신의 집에 불이 납니다. 귀신의 집에 불이 나게 되면 귀신은 자의적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집이 없는 귀신은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귀신은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에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도 불러와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귀신의 거하는 집을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로 귀신의 집을 태우게 되면 잊점이 많습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게 되겠지만 집을 태우게 될 때 귀신의 거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자의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귀신이 다시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경우는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자기보다 더 약한 귀신을 내 보냅니다. 동료를 고자질합니다. 또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주변의 사람을 건드리기도 하고 특정한 사람의 가족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귀신은 나가면서까지 사람들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나갑니다. 사람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나

가기도 하고 거짓 정보를 유출하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귀신의 성향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 잘 아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귀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 많이 아셨으며 저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성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 12: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마 12:44]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마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의 전하신 예화를 보면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라는 말은 축사사역

을 통해 귀신이 빠져 나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빠져 나간 귀신은 쉼 곳을 찾아 다닙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라는 말은 귀신이 좋은 거처를 찾아 다녔다는 말입니다.

이전 집보다 더 멋지고 좋은 집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은 찾지 못해서 다시금 예전에 거한 집이 생각이 나 그 집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전에 거하던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비었다'는 것은 다른 아무 귀신이 그곳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비어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축사사역을 할 때 귀신이 빠져나가면 빠져 나간 자리가 비어집니다. 축사사역자들이 실수를 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사사역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속처리가 부족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축사사역자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축사사역으로 인해 귀신이 빠져 나갔으면 그 빈 자리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제되었다'는 것은 그 집이 청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축사사역을 통해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면 매우 개운합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기쁨이 절로 납니다. 매우 행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렇듯 축사사역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집이 다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있어서 그런 '소제된' 집은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도둑놈이 으리으리하게 잘 사는 집을 더 탐내지 못하는 초가집에 더 매력을 느끼지는 않듯이 귀신 또한 깨끗하고 정리된 집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설픈게 깨끗해서는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렇기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리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살았던 집이 수리하여서 매우 멋진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있어서 이처럼 매력적인 집이 또 어딘들 있겠습니까? 너무나 꿈에 그리던 집인 것입니다. 귀신에게 가족이라도 있다면 가족을 데리고 평생토록 살고싶은 그런 꿈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신의 동료들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5)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귀신이 다른 동료들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혼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한번 쫓김을 받았기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귀신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한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히려 여덟 귀신이 들어온 꼴이 되어서 이전보다 그 형편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이 일을

많은 축사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귀신을 쫓아 내고 기쁨충만함으로 축하 파티를 열 때에 여덟 귀신이 들어와 오히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심해지는 일을 축사사역자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쫓아내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든 것은 우리에게 축사사역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축사사역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축사사역은 귀신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됩니다. 축사사역의 초점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많은 축사사역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에 정신이 팔려 그 사람에게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귀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다. 그러다보니 귀신은 잘 쫓아 냅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이 빠져나간 그 사람은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후속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차만 팔고보자는 어리석은 판매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사용하십시오. 성령의 불은 가장 안전하며 가장 강력한 치유법입니다. 성령의 불은 귀신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불은 후속조치가 완벽한 방법입니다.



8장

/

귀신의 침투

귀신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귀신의 공격이 있었고 오늘도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귀신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귀신들과 귀신의 아버지 마귀를 붙잡아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까지 저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우리가 자유해지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귀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
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은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질병도 없기때문에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에 귀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
다. 모든 귀신과 귀신의 아버된 마귀는 지옥불에 떨어졌기 때문입
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
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
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귀신을 조정하고 다스리는 마귀가 유황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
한 마귀가 권세를 허락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유황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모든 귀신들은 백보좌심판대에서 저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저들도 이전에 하늘의 천사였음
으로 심판대 앞에서 저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
질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
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결국 천국에는 마귀도 없고 짐승도 없으며 거짓 선지자와 귀신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평화스러운 곳이며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에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그 어떠한 질병도 없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침투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들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이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귀신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귀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귀신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으며 귀신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귀신들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귀신은 거짓말로 침투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귀신은 그 거짓말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귀신에게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은 필요악이다"고 말합니다. "진실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마귀의 영역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이미 우리 삶 깊숙히 스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

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 하는 자를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 마귀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누구에게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은 그대로 사람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을 모두 아십니다. 당신의 생각도 헤아리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 정직해야 하며 사람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사람에게 감춰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용은 사람들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거짓말 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할 때에 귀신이 그 거짓말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밝히면 거짓말을 했을 때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귀신을 싫어한다면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 귀신은 '기회(chance)'를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 귀신은 먹을 것을 발견한 개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2. 귀신은 참소를 통해 침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참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참소할 때 귀신은 당신의 참소를 통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참소는 마귀의 영역이기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 참소할 때 그것이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때문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당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위 본문은 마귀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소'는 헬라어<카테고르>로 '고소자' 혹은 '비난자'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는 것은 고소를 잘 하고 비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가 이처럼 남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난을 잘 하고 고소하는 자는 마귀의 영역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고소하

지 않으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험해져서 남의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고소하지 않으면 수많은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가 비난하고 고소하는 자이기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귀의 성품이 내게 묻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이 내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고소할 때에 귀신이 그것을 틈 타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은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소할 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의 정체를 밝힐 때 그 귀신들이 비난과 고소할 때에 들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남을 비난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잘못하지 않는 사람도 비난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고소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고소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고소하기도 하고 심하면 법에 고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잘못을 고소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고소문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변호사와 검사가 명예로운 직업이 된 것도 이처럼 고소문화가 발달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악한 영은 매우 교묘하게 나를 고소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같이 악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고 그러니?"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듣고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나같이 못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란 생각이 제 머리 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영의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다. "너를 보라고! 너는 죄인이잖아~ 너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보니 모두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된 악한 영의 고소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떨거지고 마침내 내 머리는 땅바닥까지 다다를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나 자신에 대한 처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경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내게 들어오자 그동안 악한영이 내게 고했던 고소들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지금 내게 거짓을 고했구나. 저는 너의 말이 틀림을 깨달았도다. 그러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담대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고요해졌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내면의 음성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저는 내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으며 마귀의 음성도 들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성령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였고 성령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귀신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이런 영적인 음성으로 고소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고소하기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고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목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목사가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느냐에 따라 교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한지 판가름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귀신은 다른 사람보다 담임목사를 더 집요하게 고소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라는 고소를 많이 합니다. 나도 이런 고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귀신한테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더럽고 추한 목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네가 최고다! 내가 너를 세웠도다"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없었다면 이미 저는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게 합니다.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고소하게 하고 아내에게 남편을 고소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고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귀신들의 활동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을 고소하고 이웃이 나를 고소하는 것은 귀신이 우리를 멀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고소작전에 속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신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저는 내 아내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처음 목사안수를 받

은 후에 몇 개월 안되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갓난 아이와 이제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장 전도율이 낮은 지역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렌트할 비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개척동역자도 없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 두 아들과 아이들때문에 일할 수 없는 아내가 전부였습니다. 미국은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있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길 경우는 아동학대죄에 걸려 감옥에 가야하고 아이도 뺏깁니다. 심할 경우 다시 아이를 찾을 수 없으며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되어 양육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개척하여서 제대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개척에 대한 사명이 없었기때문에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내의 고백을 들었는데 처음 개척했을 때 아내는 개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이 하니까 따른 것이지 온 심령을 다해 동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도와주지 않는 아내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욕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내를 핍박하고 욕설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목회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의 내모습을 회고하면서 "그때는 자기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러한 배우자 비난은 내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저처럼 배우자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우자로부터 몹쓸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아파합니다. 이처럼 귀신은 비난을 통해 우리를 좌절케 하고 실패케 합니다. 우리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3. 귀신은 세상의 오락을 통해 침투합니다.

귀신은 세상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침투합니다. 세상의 정욕은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때문에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침투합니다. 사도요한은 세상의 정욕이 마귀로부터 좇아 온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세상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마귀공격 실체'에서 구체적으로 다뤘기때문에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귀신이 이러한 세상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실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대한 귀신의 실제적인 활동은 '오락'입니다. 세상의 오락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오락을 탐할 때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길을 열어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오락입니다. 아이들이 좋지 않는 게임을 할 때 게임화면을 통해 귀신이 아이들에게 들어갑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즐겨하는 아이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을 많이 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전혀 게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이기때문입니다. 만일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른에게도 세상에 나가지 못하게 집안에 가둬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리' 떼에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마 10: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
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
둘기 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워 숨
어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리떼'

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안전한 장막에만 거하게 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게 키우는 자녀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 스스로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시오. 다만 저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을 뿌리시고 선포하심으로 자녀를 악으로부터 지키십시오.

만일 당신이 주님의 보혈을 뿌릴 손이 없거나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을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들로부터 계임기를 뺏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녀를 강하게 키우고 싶지 않고 세상에 놀려사는 아이로 키우길 원한다면 치마폭에 감싸서 키우십시오. 결코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기때문에 당신이 아이들을 평생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스스로 당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녀를 의탁해야 합니다. 당신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울 수 있도록 의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보혈로 자녀에게 뿌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자녀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세상과 부딪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녀를 강건하게 키우십시오.

세균이 무서워 자녀가 더러운 흙을 만지는 것을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흙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려하지 마시고 모기에게 물리게 하십시오.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모기에게 물려 죽는 사람은 벌에게 쏘면 더 빨리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을만큼 두들겨 맞도록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강건해집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세상의 오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거의 6년 동안 집 안에만 갇혀 살고 있습니다. 전화기로부터 모든 전화번호를 없앴으며 거의 한 달에 한 명도 만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저에게도 부정결하고 부거룩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결코 우리는 세상의 오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오락은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엔 술도 마실 것입니다. 더 심한 경우엔 더 좋지 않는 것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남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막을 수 없는 세상적인 오락입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오락은 쇼핑입니다. 남편을 위해 쇼핑할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해 쇼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쇼핑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스 미디어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책, 음반, 영화, 비디오 등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핸드폰이 발달됨으로 인해 인터넷의 문화가 가장 강력한 매스 미디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

다. 이것 역시 세상의 오락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오락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오락을 통해 귀신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동료와의 모임을 통해 귀신은 우리 안으로 침투합니다. 쇼핑을 하고 있을 때 귀신은 우리 안으로 침투합니다. 갑자기 동료와의 모임을 하고 온 남편의 태도가 여느 때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쇼핑을 갔다온 아내의 모습이 여느 때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녀 또한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 두시간 인터넷 검색을 하고 나온 사람은 마치 실제 삶과 매스미디어 삶과 구분을 할 수 없을만큼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마약 중독이나 술중독과 같은 중독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백화점, 술집, 모임, 영화관, 음식점, 마켓, 인터넷, 핸드폰, 골프장 등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갈 때에는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없이 세상의 오락을 즐길 때 귀신은 조금도 인정사정없이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오락은 귀신이 깔아놓은 덫이기 때문입니다. 쥐만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귀신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덫에 걸리고 있습니다.

4. 귀신은 음란을 통해 침투합니다.

귀신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에는 음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은 다른 세상의 오락보다 훨씬 강력한 덧입니다. 다른 세상의 오락은 모두 몸 바깥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음란만큼은 몸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덧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은 그만큼 상처가 크며 귀신들의 활동 또한 강력하게 됩니다.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나라"

음란이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더럽히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듯이 우리 또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인데 그 거룩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더럽고 추잡한 성행위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세상의 가장 끊기 어려운 오락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음란한 것을 탐할 때 마귀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할 때 마귀는 자연스럽게 걸어옵니다. 우리가 음란한 짓을 행할

때 마귀는 큰 걸음을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음란에 중독되었을 때 마귀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뒷짐 지고 걸어옵니다.

우리가 음란할 때 마귀는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적능력은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능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음란 짓을 행하는 것만큼 귀신들이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란때문에 귀신의 밥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란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졌으며 음란때문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음란은 한 나라를 망치게 합니다. 음란으로 인해 멸망한 나라는 많습니다. 음란은 이처럼 모든 것을 망하게 합니다.

음란한 것이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을 때 "보혈!"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 떠나갈 것입니다. 음란한 환상이 생각 중에 아른거릴 때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보혈!"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음란한 환상이 떠나갈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음란한 것으로 유혹할 때 "보혈!"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떠나갈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 중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이 떠올라 괴로워했던 사람이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아 내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음란한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주었습니다. "음란한 영상이 떠오를 때 그 영상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의 말대로 행했고 그때부터 그런 영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음란한 것으로 귀신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심한 음란행각으로 번지게 합니다. 이렇듯 음란한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신의 가정은 위험에 빠져있으며 당신의 교회 또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주부가 음란함에 빠져있습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인터넷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아내가 혼자 있을 때 정욕을 참아야 합니다. 인터넷은 혼자 있는 주부에게 음란물을 제공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서 인터넷이 온통 음란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이메일을 점령하고 있으며 모든 검색창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이란 단어를 검색해도 음란한 영상이 눈에 띄게 될 정도로 음란은 가장 확실한 귀신의 활동을 돕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란한 것으로 인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가장 절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보혈과 함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그 사람 안의 모든 음란한 귀신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5. 귀신은 시기와 질투를 통해 침투합니다.

귀신은 당신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 당신을 침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귀신은 합법적으로 당신에게 침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은 악한 것이며 이 또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 3: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약 3: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약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하는 것과 질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깔려있습니다. '시기'라는 헬라어 <젤로스>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젤로스라는 단어에서 '젤롯당'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당이었는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이 젤롯당원이었습니다.

이 말의 근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래 '시기'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단어가 나쁜 단어로 변질된 것은 마귀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충애를 받은 매우 뛰어난 천사였고 그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그가 다른 천사를 거짓말로 고해 바쳤고 다른 천사를 참소하였

기때문에 시기하는 자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만이 가장 큰 총애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욕심이 가득했기때문에 다른 천사를 참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로 인해 시기라는 단어가 좋지 않는 단어로 변질된 까닭입니다.

마귀가 이렇듯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지만 오히려 시기하는 자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총애를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때문에 시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직원에게서도 시기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한 선생을 위해 열정적으로 충성하고 섬김을 다하는 제자의 마음에도 시기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여서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러한 시기심과 함께 따라 다니는 것은 '질투심'입니다. '시기심'이 열정적인 마음을 의미한다면 '질투심'은 그러한 열정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칸나>이며 이 단어는 여러곳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아이를 먼저 가진 언니 레아를 향해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 30: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낱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또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창 37:10]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창 37:11]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듯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죄를 낳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시기'나 '질투'는 원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더욱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 가장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때문

에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가 바람피는 남편을 참지 못하는 것이 아내의 성질이 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나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에서 질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영향에 사로잡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미워하게 하며 서로 죽이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워질 때 귀신은 아주 재빠르게 우리 안으로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6. 귀신은 다툼으로 침투합니다.

귀신은 다툼이 있는 곳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툼이 마귀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툼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약 3: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약

3: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약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리데이아>인데 이 단어는 '비열한 본성' 또는 '이기주의적인 성품'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당을 짓다'라는 뜻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롬 2:8] 오직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듯당을 짓는 것 자체가 마귀의 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당을 짓게 함으로 서로 분열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갈라졌으며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은 귀신에게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지극히 천한 마귀의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다투는 자는 천한 자입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고결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15년이 다 되어 가지만 다툼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다툼은 두 번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박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목소리가 올라가고 서로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가 싸워야 더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더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떤 부부도 싸움의 휴우증을 가지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상처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내적치유를 해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배우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에 더욱 심합니다. 지금껏 남편에 대한 상처가 없는 아내는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다툼이 있게 하고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때에 귀신이 잠입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다툼이 없게 하십시오. 다툼이 있는 것은 당신의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도 다투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면 지는 것이고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신혼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결혼하여 얼마되지 않았을 때 아주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응접실의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화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할 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자"란 약속이 생각났기에 속으로 '제가 먼저 화해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맘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에서 나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어느새 방에서 나와서 내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아내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했어야 했는데 아내가 나보다 먼저 화해를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가 먼저 화해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간단한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아내가 먼저 화해를 했습니다. 크게 다뤘던 두 번의 순간에도 아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제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지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것은 아내가 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덕분으로 인해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 어떠한 다툼으로 인한 귀신이 엄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귀신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툼을 통해 우리 안으로 침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귀신에게 속아서 부부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으로 인해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떨어져 원수처럼 사는 부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마치 부부가 아닌 남남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도 알고 있습니다.

다. 더 이상 귀신에게 속고 살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하나가 되십시오. 둘이 한 몸이 되십시오.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십시오. 서로 기도하십시오. 귀신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용서를 비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속이고 조정하는 귀신은 당신으로부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귀신은 거짓 가르침으로 침투합니다.

귀신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 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이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마귀로부터 권세를 부여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 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은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짐승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마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
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도 미혹하게 하리라"

오늘날 귀신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도와 마귀
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은 거짓된 구세주를 의
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
케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거짓
된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이
렇게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대
로 살게 됩니다.

"[딤후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거짓 선지자는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때에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말려들게 되는 사람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 선지자를 통한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은 거짓된 지식을 전하는 귀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인데도 그 사람은 그 가르침이 진리라며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도만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였을 때 "기도만이 이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역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도와 금식 외에..."

라는 말로 바뀌서 가르칩니다. 물론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기도' 밖에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식'하는 것도 다소 일리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본이 '기도'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기도'에 더욱 열심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사역자는 '기도'외에 '금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모두 귀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는 '기도'외에 '선행'을 집어 넣기도 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기도'외에 '헌신'을 집어 넣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무리들은 모두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는 가르침도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길이 많다"라고 가르치는 무리들도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입니다. 귀신은 이처럼 우리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당신 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비록 당신이 옳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변론은 당신을 악한 것에 사로잡히게 만들 것입니다.

"[딤후 2: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

바울은 변론하지 말라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은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귀신의 유혹입니다. 이것 또한 덧입니다.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에 대해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덧이 되는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은 다툼밖에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거짓 가르침에 대해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귀신의 유혹입니다. 당신이 변론하기 시작하는 순간 빨대로 쥘스를 빨아 마시듯 귀신은 당신 영혼을 빨아 먹을 것입니다.

저는 단기선교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변론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단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더욱 변론하길 원합니다. 그중의 한 종파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은 변론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변론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들의 전하는 가르침을 듣자면 한심하기도 하고 금방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 옵니다. "변론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영웅이 되고자하는 마음이 생겨서 변론하지 않고는 배겨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증인 사람과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변론하고 나면 그들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간단한 지식을 암기해서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초보적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변론에서 이기게 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전의 변론했던 사람보다 수준이 높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겼습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저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변론은 마귀의 유혹 중 하나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다시는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변론하다가도 금방 그 배후의 조종세력을 발견하기때문에 더 이상 변론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그 변론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이미 저의 영혼은 더럽고 추악한 가르침에 빠져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8. 귀신은 미움으로 침투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함께 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귀신에게 당신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당신의 미움 때문에 귀신은 합법적인 침입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에 속한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당신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두움에 거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요일 2: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

했습니다. 사도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기에 영생까지 얻지 못한다 경고했을까요? 그가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서 그렇게 확언한 것일까요? 만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며 그렇기때문에 영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긴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영생을 취할 자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미셋오>입니다. 이 <미셋오>란 단어는 말 그대로 '미워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다'란 뜻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반감을 의미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미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는 그 형제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미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형제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이러한 음흉한 계략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눅 6:27]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때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런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무릎을 꿇고 죄에 대한 용서를 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짓지도 않는 죄의 값을 치루기 위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게도 그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네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안된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 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억울한 일은 많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놓을 수 없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사는 입이 있어도 내 맘대로 그 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목사는 손이 있어도 내 맘대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발이 있어도 내 맘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용하라고 할 때 사용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실 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셨

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오직 중한 죄인만이 짊어질 수 있다는 십자가를 나때문에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입이 있으셨지만 주님 뜻대로 입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이 있으셨지만 주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라고 하셨지만 한번도 내게 "왜, 내가 너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니?"라고 경멸차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도 주님의 길을 걸으십시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길입니다.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니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모든 미움을 버리십시오. 미움을 가져다 주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그 사람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미 주님은 당신의 큰 사랑때문에 감격하고 계십니다.

9. 귀신은 슬픔으로 침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배우자가 죽음을 당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자녀가 죽을 때에도 큰 슬픔이나 배우자의 죽임이 더 큰 슬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슬픔이 있을 때 귀신은 그 사람 속으로 들

어갈 틈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슬픔으로 인해 근심에 쌓이고 영혼이 번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렘 8: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처럼 슬픔은 근심을 가져오며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얻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 영혼이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의 실패는 엄청난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슬픔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슬픔이 없습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에서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은 그곳엔 마귀의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개인 귀신들도 없습니다. 모두 지옥

불에 떨어졌기 때문에 천국은 평화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슬픔은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귀신은 그러한 슬픔을 통해 우리 안으로 침투하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을 때 슬픔을 참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벤전 2:19]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이 슬픔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간에 슬픔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슬플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란 구절의 '생각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쉬네이데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양심'이라는 단어와 함께 '인식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슬플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다 깊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쩌면 마귀와의 관계를 더 깊이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도 마귀의 생각이고 모든 행동 또한 마귀의 행동의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플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 나을 수 있게 해야 함을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임

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슬퍼할 때 마귀와 관계만 맺는다면 우리는 귀신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때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슬퍼하는 자를 찾아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주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슬퍼하는 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슬픔에 빠진 자들은 모두 귀신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귀신은 슬퍼하는 자를 찾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갈 것이며 슬픔이 지속되는 한 그 사람에게서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꼴이 되어서 멸망당하는 사람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10. 귀신은 절망으로 침투합니다.

귀신은 또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미 귀신의 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

는 것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락거려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한채 오히려 그 증상이 더욱 심해 집니다. 욥은 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어떠한 소망조차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 6:26]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소망이 끊어진 자'라는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길게 나열한 것입니다. 결국 욥은 절망했으며 소망이 끊어진 자였습니다. 그의 열 자녀가 하루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하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졌으며 사랑하는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욥창이 생겨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뽕뽕 긁어도 시원치 않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자꾸 질책하시자 욥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소망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도 달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욥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귀신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귀신은 절망에 빠진 사람 속에 들어가 그곳에 집을 짓고 거주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동료 귀신들을 불러와 그 사람을 더욱 심한 지경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욱 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원래 병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여 두 딸을 낳고 행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세월은 너무나 짧았고 남편은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 여인에게는 고생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 봤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다보니 요양원도 찾아 다니면서 민간요법도 사용해봤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인 뱀만 해도 수백마리라고 했으니 남편을 살려보겠다는 지극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얼마 가지못해 죽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린 두 딸과 젊은 아내를 두고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

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서 수도 없이 간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남편이 죽게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니 모든 것이 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슬픔은 절망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두 딸을 생각해서 죽을 수는 없었지만 밤마다 울고 날마다 한숨 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귀신은 어김없이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귀신은 그녀 안에 거주하면서 그녀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수십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과 함께 살지만 여전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는 새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나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그녀의 삶을 묶어갔습니다. 생각을 묶었고 그녀의 육신까지 묶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삶은 기쁨의 삶보다는 인내의 삶의 연속이었으며 수많은 질병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모두에게는 그녀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대신 아내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처럼 소망없이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고 살아갑니다. 다

른 것은 다 잃더라도 하나님만은 잃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때문에 하나님이 소망되심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기자는 가장 힘이 들 때 스스로의 영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시 43: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보고 절망에 빠지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실 것이니 그 방법을 애써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당신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11. 귀신은 근심할 때 침투합니다.

근심은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근심이 많은 사람은 우울

해지며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심(anxiety)'은 '걱정(worry)'과 사촌지간입니다.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데 '조르다(choke)'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걱정과 근심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압박하게 되어 스스로 목을 조르듯 영혼을 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밖으로 표현될 때 우울증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것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의 대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중 95%나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걱정과 근심으로 스스로 영혼을 조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귀신은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일단 들어온 귀신은 거주하려고 노력합니다. 귀신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그만큼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교회가 반쪽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생각을 낳다보니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목회자는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며 자신의 근심대로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갈라진 것

은 그 목사가 그렇게 생각했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엇하나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의심은 걸잡을 수 없을만큼 큰 폭풍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약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
으니 [약 1: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하지 말라 [약 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
는 자로다"

근심은 의심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의심하게 될 때 여러가지 생
각이 사로잡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다가 또 저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결국 마음이 번뇌하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평안이 없
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심이 번뇌를 불러온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잠 12:25]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
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의 헬라어는 <테아가>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근심'이라
는 단어가 모두 <테아가>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아가>

》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근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등을 뜻합니다. 결국 근심하는 것은 걱정하는 것이고 근심과 걱정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염려와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 근심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 문제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짓눌러 번뇌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돈을 가리켜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

우리는 근심함으로 귀신에게 틈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지속적인 동행입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통해 우리의 근심은 없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기도를 드러야 할 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무시로(anytime)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근심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

이곳에서 언급된 '근심'은 헬라어로 <타랏소>입니다. 이 단어는 이전에 언급된 <데아가>와는 다른 뜻으로 쓰여졌는데 '함께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또는 '불안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평정을 누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어지럽고 불안케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지극히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거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거할 때는 귀신이 조금도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감정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 어김없이 귀신은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정서가 불안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눈동자가 왔다갔다 합니다. 손을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정서가 불안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근심이 쌓여서 영혼이 번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사에 근심함으로 안절부절못하고 불안스러워하는 사람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일순간 불안스러워하는 증상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귀신의 영향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불안스러워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성령의 불은 태우는 성질이 있어서 더럽고 추악한 영들을 태워버립니다. 귀신이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거주하는 집을 태우는 것이기때문에 귀신이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너무 뜨겁다보니 스스로 자진해서

뛰쳐 나가는 것입니다.

12. 귀신은 화낼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화를 낼 때 침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을 향한 분노이지만 우리의 분노는 우리를 위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분노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수님의 분노는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 2: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요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분노를 가리켜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말한 것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님의 그런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께 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분노라 할지라도 위험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귀신이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통해 흘러 들어올 수 있기때문입니다.

나도 설교를 할 때 자주 불의한 자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화를 내세요?"라고 불평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분노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분노의 말을 했을 때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침울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그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무엇이 잘나서 형제에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불의한 형제에게 화를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도 형제에게 노한 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심판이 되는지 형제에게 노한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심판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 분노를 통해 귀신이 내게 침투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목사가 오히려 분노함으로 귀신의 밥이 된다면 우스운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엡 4: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낸다'는 헬라어는 <오르기조>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를 포함하여 사람의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는 완전히 대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람의 분노는 마귀의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분노함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분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입니다. 이제
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분노함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마귀의 분노함이
붙게 됩니다. 성경은 미련한 자가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잠 12:16]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빨리 드러냅니다. 쉽게 분노하
는 자는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
다. 한번 분노함으로 귀신의 침투가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저의 성격은
베드로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화를
잘 냈습니다. 그러니 술먹고 화를 내는 사람보다 더 나쁜 자였습니
다. 틈만 나면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자녀에게도 버럭 화를 냈
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를 내면 낼수록 더 많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화를 낸 것이 점차적으로 횟수가 많
아지면서 매일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모두 귀
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죄를 짓고 있을 것입니
다. 이 사람에게 화내고 저 사람에게 화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순간적이라도 급하게 화를 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더 나쁩니다. 화를 내고 그 화를 평생 끌고 가는 사람은 더 지독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분을 품게 하고 분을 내게 함으로써 우리를 망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분노로 인해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 31:9]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
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근심'은 '분노'에 가까운 단어 <카아스>입니다. 이 단어는 '분노' '노여움' '격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우리의 눈과 혼과 몸을 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은 수명이 짧습니다. 분노하게 됨으로 몸과 영혼이 쇠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노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13. 귀신은 불안할 때 침투합니다.

또한 귀신은 우리가 불안할 때 침투합니다. 불안한 것은 주님의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근심하다'는 단어 속

에 '불안하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불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귀신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함으로 심령이 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 77:3]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불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입니다. 이 단어는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떠들썩하다'란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불안한 사람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뭔가를 혼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조금만 옆에 가면 공격적으로 으르렁거립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주변을 산만하게 만들며 떠들썩거리게 합니다. 이런 모든 증상은 불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증상을 나타나는 이유가 귀신의 영향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기타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축사사역하는 사람은 그것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귀신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영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영분별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77편 3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을 생각하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불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불안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불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를 맺는 사역자에게도 불안함은 존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불안함을 감출수 없습니다. 내게도 불안함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지만 여차하면 저의 평온함은 금새 회오리바람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됩니다. 심령은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불안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막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주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불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성령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쁨 부으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또한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물로 주신 세례는 물세레이지만 불로 주는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다. 불세례는 곧 성령의 불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마 3:11]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ですよ"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의 불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때 귀신이 조금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14. 귀신은 두려워할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침투합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피해나 상처를 주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향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땅히 믿는 자는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귀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상대가 있을지라도 엄마 아빠 뒤에 숨기만 하면 든든합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가 부모를 매우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가리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물리칩니다. 사랑은 조금도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요한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따르는 이유는 저가 온전한 사랑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가 천국을 보았을 때 천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도요한은 지옥불과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못에 영원토록 빠질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명단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끼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옥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른 죄인들처럼 취급하셨을까요?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렇다면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갈 명단에 적혀져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마귀를 두려워했던 자들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귀의 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귀신을 보내어 두려워하는 자들을 마음껏 주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때문에 우리 또한 귀신을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고 승부는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가 승리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의 출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으니 우리 또한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귀신은 두려워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은 더욱 당신을 좋아합니다.

귀신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은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귀신은 그 피가 어떠한 권세가 있음을 압니다. 그 즉시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귀신은 주님께서 보혈로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귀신에게 선포할 때 귀신은 기겁을 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다. 그래서 야고보는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이 달아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15. 귀신은 죄를 지을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으로 침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 그는 귀신의 편에 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때문에 죄 짓는 모든 자의 첫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

라놓기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죄의 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 59: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
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사 59:2] 오직 너
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담벼락'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을 볼 수도 없게 만들고 동행하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 담벼락을
허물어트려야 더 이상 마귀의 영향력에 빠져살지 않아도 될 것입
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는 결코 죄를 짓지 않습
니다. 사도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고 말하였습니다.

"[요일 3: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
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
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지음 받았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죄의 원천이기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죄를 어떻게 짓는지도 잘 알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일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희망되십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죄를 지었기때문에 주님을 피해 달아나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마귀에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었기때문에 마귀가 당신을 반겨줄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나갈 때는 마귀로 인해 당신 인생은 처참하게 짓밟게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당신의 지은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게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죄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케 되는 죄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약을 한 번 취한 것과 천 번 취한 것이 다르다 하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한 번이나 천 번이나 모두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누가 죄를 회개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16. 귀신은 우상숭배할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또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때 침투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로 인해 마귀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귀신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귀신의 사로잡음은 비단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을 붙잡고 온 가문을 사로잡기때문에 우상숭배로 인해 가계에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의

문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의 자손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나 끔찍한 형벌입니다. 너무나 심한 형벌이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다 만난 사람들 중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부모나 조상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단순히 성경말씀만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상숭배로 인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음

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야말로 끝난 인생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당신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까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사 대"는 매우 많은 가족수입니다.

결코 당신의 우상숭배로 인해 당신 가족과 가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이라는 것은 당신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을 말합니다. 그것이 부처일수도 있고 다른 신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정이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나 일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의 부모도 여러 잡신을 섬겼습니다. 부엌에는 부엌신이 있었고 지붕에는 지붕신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에는 자전거신이 있었고 각 방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1년에 지내는 제사만 10번이 넘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제삿밥과 제사 국을 먹었습니다. 제사 때 가족들과 함께 절도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기에 어린 나

로서는 아무런 의식도 못한 채 따라야만 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제가 의식 없이 여러 신을 섬겼고 제사를 지냈을 때 내게 많은 저주가 임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내 인생이 막히고 막혔던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때문입니다. 이것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꼬인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끊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저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그 저주가 서서히 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잘 끊게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파쇄되도록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가계에 흐르는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물론 섬기는 다른 신을 파쇄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잡신의 흔적을 파쇄하십시오. 불상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다른 신의 모습이 새겨진 달력이나 물건들을 없애십시오. 다른 신에 관한 책도 버리십시오. 그런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당

신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저는 치유를 위해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없애라고 권합니다. 집주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없애고 저것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참석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 모두 일어나 내 뒤를 따르며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에 좋지 않는 잡신의 흔적과 다른 신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을 없애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더 강력하게 뿌려줍니다.

실제적으로 집들을 방문하면 각 집마다 다른 영적인 분위기를 느낍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집은 흐르는 악한 기운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잡신을 섬기는 집에도 악한 기운을 느낍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파오기도 하고 머리가 심하게 죄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 몸에 소름끼치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런 집에서는 더욱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더욱 강하게 주님의 보혈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한번이나 혹은 두 세차례 보혈을 뿌리고 나면 그 집의 영적기운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서 우상을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 13: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당신도 과감하게 모든 우상을 버리십시오. 어떤 분은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망치로 깨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결단으로 인해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파쇄될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의 누리는 자유는 이 땅에서 풍족한 은혜의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17. 귀신은 주술에 의해 침투합니다.

귀신은 주술에 의해 침투합니다. 주술은 사술과 요술로 구분됩니다. 사술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피해주기 위해 벌이는 것이지만 요술은 단체가 집단을 피해주기 위해 벌이는 것입니다. 사술과 요술 그 자체가 악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하 21:6]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신접한 자'는 히브리어로 <오브>입니다. 이는 '강신술사(무당, 신접한 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강신술사' 혹은 '영매'는 주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신접한 자'는 주로 여인을 가리키고 '박수'는 주로 남자를 가리킵니다. 신접한 자

와 박수 모두 강신술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신술사는 땅의 구멍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접한 자를 찾아간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점을 쳤습니다.

"[삼상 28:8]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요청대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마술을 통해 사무엘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강신술사는 이러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 역시 이러한 강신술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잠시 나타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들의 가지고 있는 마력을 통해 사람의 넋을 가로채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신술사를 싫어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을 가리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귀신들이 주로 가족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으로 변하지 않

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며 이 귀신들은 하늘전쟁이 있었을 때 마귀와 함께 지상으로 쫓겨난 존재입니다. 이들 수는 더 해지지도 않으며 감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마귀와 함께 모두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으며 지옥 불에 떨어질 때까지 저들은 마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다만 저들이 우리 가족의 이름을 말하고 제가 아는 친척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은 가족의 내력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삶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이 무엇이고 형제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가족이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귀신은 신접한 자나 박수를 이용하여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하나님의 자녀를 현혹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만난 사람은 영락없이 귀신의 현혹에 빠져버립니다. 죽은 가족을 만날 때 당사자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귀신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가족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빨리 헤어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귀신은 죽은 가족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말하는 것

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마귀와 그와 함께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만 말할 뿐입니다.

또한 성경은 '복술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복술자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 18: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복술자'는 주문을 외우며 장래 일을 점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술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 채 복술자(점쟁이)의 말에 더 좌지우지하는 행위이기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싫어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복술자의 말을 듣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복술자가 되었든지 신접한 자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케 하는 것이기때문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도 말고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레 19: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

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 '길일'택하는 등 주술행위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점술가나 부적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
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귀신은 이러한 것을 통해 그 사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더욱
탐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점술가를 통해 침을 치
거나 부적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즐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아직도 널리 알려진 주술의 내용으로는 공알바
위에 돌을 던져 넣는 것이나 출산한 산모가 입었던 치마를 입으면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주술의 하나입니다. 또한 돌부처의 코를 짹
아서 그것을 물에 타 마시면 아들을 낳는다는 생각이나 상대방의
그림을 가져다가 침을 놓는 행위, 또는 상대방의 베개사이에 부적
을 넣고서 주문을 외는 식의 행위는 모두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이
러한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주술행위를 그대로 따라 할 경우에도
귀신은 그런 행위를 타고 침투합니다.

또한 주술의 한 가지로 요술이 있는데 요술에는 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 또한 싫어하십니다. 마술 또한 하나님께
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흉내 내는 사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마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의 책들을 모두 불

태우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행 19: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행 19: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바울에 의해 악한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에 자신들이 즐겨 사용했던 마술책과 관련서적을 모두 가지고 나와 불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태운 마술 책 값이 은 오만이나 되었습니다. '은 오만'의 값어치는 오늘날로 계산할 때 대략 25억쯤 되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은 이 금액을 '수백만달러'라고 표기했습니다(NIV).

지금 당신은 모든 주술과 연관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끊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역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안수를 받으십시오. 안수를 통해 성령의 불이 당신의 끊기 어려운 주술과 연관된 죄들을 끊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의 선행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왕하 23:24]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

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
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18. 귀신은 교만한 자에게 침투합니다.

귀신은 교만한 자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누가 교만하다고 판단
되면 금세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교만을 통해 자연스
럽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
가게 되면 그 사람의 교만은 날이갈수록 심해집니다.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처음엔 겸손하다가 뭔가 났다 싶으면 교만하게 되는데
귀신은 그러한 경향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할 때를 기다립
니다. 물론 교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최대한 만드는 것도 귀신의 역
할입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
다. '멸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죄나 좋지 않은 행동은 그렇게까지 멸망되지 않지
만 교만은 다른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멸망당합니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
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마귀가 어떻게 교만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사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 14: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사 14: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계명성'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며 '루시퍼'라 불립니다. 마귀는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천국전쟁때 패하여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 중에서 매우 빼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천사들보다 자신이 더 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천사가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면 그 천사를 참소하였습니다.

"[계 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이처럼 다른 천사들을 참소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어찌나 심했던지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귀가 얼마나 다른 천사들보다 뛰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다른 천사가 자신보다 뛰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고 급기야 자신이 하나님과 견줄만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마귀의 모습을 가리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줄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은 창조주와 어찌 견줄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자신 스스로 너무 점수를 많이 준 나머지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이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형제들도 몰라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몰라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매우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서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신 8:14]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결코 그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의 특성때문에 교만한 자에게 귀신은 어김없이 달라붙고 그 사람을 더욱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교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능력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교만은 나타납니다. 교만은 나이의 차이에 따라 강도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교만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교만할 수 있지만 못 배운 사람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는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

심이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태로 내려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왕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며 임금같이 등장합니다. 결코 그 누구를 위해 종으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낫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의 시작이며 교만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19. 귀신은 저주할 때 침투합니다.

귀신은 누군가를 저주할 때 침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귀신의 침투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렇게 선포한 것이기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

한 것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이뤄지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당신의 선포를 듣고 그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포할 때 그 선포대로 이뤄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게 저주를 선포했다면 당신의 선포대로 자녀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놈아"

"이런 씨을 놈아"

"이런 쳐 죽일 놈아!"

"차라리 죽어라. 이놈아!"

"너는 안돼!"

"평생 돼지처럼 살거다!"

"너 잘 사나 봐라!"

"에이, 이 못난 놈아!"

이런 욕설은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의 말을 할 때 이 저주의 말을 들은 자녀는 그대로 됩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저주스런 말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자신에게 저주한 것도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저주할 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합법적인 권리를 얻게 됩니다.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여느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했던 여인이고 남편에게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베카가 삶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본인 스스로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 27:11]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창 27: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뵈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창 27:13]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저주를 자신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한 말이었지만 실제로 리브가는 인생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 27: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의 삶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이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에서 재미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야곱이 이삭처럼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삶에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헷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삶이 재미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주스런 말을 했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의 삶은 어떠한 좋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 스스로에게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주의 말은 귀신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에게 저주의 영으로 가득차게 만들고 끝내 그 사람을 저주한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에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나는 안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겠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실패할거야!"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이런 저주의 말은 실제로 우리 삶을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의 말을 행한 과오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저주스런 말로 인해 타인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상처를 당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

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
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장

/

귀신의 활동

예 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구든지 귀신이 쫓겨나가면 상태가 좋아집니다. 만일 귀신들림에 의해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 있던 질병은 치유함을 받습니다.

“[막 1:34]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악한 영은 우리를 번뇌케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악신은 악한 영을 가리키며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은 악신에 의해 번뇌하였습니다.

“[삼상 16:14]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처럼 우리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악한 영으로 인해 번뇌하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이 어떤 종류의 영이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일 그 악한 영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영이라면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그 영이 슬픔을 가져다 주는 영이라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번뇌하게 될 것입니다. 우울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우울해지고 맙니다. 미움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미움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도 화를 내고 분노하게 만드는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악한 영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악한 영이 존재하며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었지만 늘어나고 있는 질병을 막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속도로 발달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질병은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며 치료약은 아주 뒤늦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병명을 알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이 모든 독특한 질병을 치유하기에는 너무나 벅잡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지경입니다.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 의해

대부분의 질병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우리의 질병 중 80~90% 이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부분의 질병은 악한 영만 쫓아내면 치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질병치유 장소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 교회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병원보다 더 효과적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유받는 사람은 많은 물질이 소비될 것이지만 교회에서 치유받는 사람은 조금의 물질도 소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병원보다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질병을 치유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초대형 이단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100%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는 엄청난 이단 종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교가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였을까요?

“[행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라”

초대교회에서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였기에 각종 전염병이 심했으며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백성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이후에 이러한 치유의 능력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에는 사도들을 대신하여 세운 일곱집사들에게서 각종 능력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스테반집사와 빌립 집사입니다. 스테반집사는 민간에 각종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행 6: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테반집사가 보인 기사와 표적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보이셨던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

하셨듯이 스테반집사도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빌립집사는 유대인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행 8: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행 8: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행 8: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행 8: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에는 스테반집사와 빌립집사의 나타난 기적과 표적만 언급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반응은 초대교회 온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스테반집사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행 8: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성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행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듯이 저들도 질병을 치유하셨으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듯이 저들 또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저들을 환영하고 칭송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의 말씀을 전하였다면 오늘날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질병을 치유하였다면 오늘날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귀신을 쫓아냈다면 오늘날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이며 주님의 복음입니다.

귀신의 묶임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하길 원합니다. 귀신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기 원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육신을 갖기 원할지라도 육신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육신 가운데 거하려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신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들이 육신 갖기를 사모하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토록 육신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은 일단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통제를 통해 그 사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곧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귀신은 최선을 다해 그 일에 노력합니다. 이러한 통제하는 일을 가리켜 ‘귀신의 묶임’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묶임에 당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도 단계적으로 각각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맨 처음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괴로움을 줍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기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해 기분이 나쁜 마음이 생기게 하거나 미움의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단계로 넘어가면 그러한 좋지 못한 마음들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좀처럼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귀신이 벌써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살 집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단계에서는 귀신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단계가 지나가고 3단계에 접어들면 완전히 귀신의 통제

를 받게 됩니다. 귀신이 원하는대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으로는 잘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을지라도 나 스스로 내 몸의 좋지 못한 행동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귀신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치유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시간에 치유받고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있으며 권세있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나 영성원 같은 곳에서 능력있는 목사의 안수를 통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에 놓인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치유사역자의 말에 순종하며 치유받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 정도면 됐어’하는 마음으로 치유를 그만 두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좋은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롯유다는 3단계까지 귀신에게 묶임을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귀가 가롯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귀신은 가롯유다의 마음에 자리를 잡

고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룟유다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유다는 귀신이 자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반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룟유다의 마음에 집을 짓고 자리하고 있는 귀신에게 꿈쩍 못하고 온전히 통제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스승을 팔아 넘겨서는 안된다는 일말의 양심마저 귀신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룟유다의 결말은 3단계를 지나 4단계까지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단계에 이르게 되면 완벽한 귀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눅 8:27]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막 9: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막 9:21]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막 9:22] 귀신이 그를 죽이

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막 1: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
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막 1: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
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듯 귀신의 묶임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
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귀신의 묶임을
당한 사람들을 치유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귀신들
린 사람들을 더 많이 치유해주기 위함입니다.



10장

/

귀신의 공격 4단계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귀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귀신을 가리켜 악한 영 더럽고 추한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협력하여 악’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귀신의 세계도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으며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습니다.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가지로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도 그것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서도 ‘교회의 질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교회가 마귀의 세계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질서적이지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의 공격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귀신은 가장 먼저 ‘의심의 영’을 보냅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공격 같지만 가장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마음 속에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 갖가지 죄를 짓게 합니다.

일단 ‘의심의 영’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의 영’은 즉시로 ‘비판의 영’을 불러 드립니다. ‘비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때 ‘질투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질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미움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움의 영’은 상대방을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오를 때 자신도 모르게 ‘절망의 영’이 스며 들어오고 맙니다. ‘절망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은 좌절과 실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 때 우리 안으로 또 다른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울의 영’입니다.

‘우울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치명타를 가합니다.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자살의 영’이 들어와 사람을 자살까지 이끌고 갑니다.

우리는 귀신의 이러한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공격을 알아야 하며 막아야 합니다. 귀신의 공격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단계로 이뤄졌음을 아는 것은 귀신의 공격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공격단계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귀신의 첫번째 전략은 ‘틈’입니다. 귀신은 우리로부터 ‘틈’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귀신에게 ‘틈’을 허용합니다. 귀신은 죄와 함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귀신의 공격이 올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의심 하기도 합니다. 좋았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의심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의심은 귀신이 주는 첫번째 공격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귀신의 첫번째 공격단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틈’은 막히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완전히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2. 침투단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틈을 발견한 귀신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려고 시도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자녀이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으로 하여금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단계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공격단계에서

는 혼자서 회개하면 되지만 침투단계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적치유자를 찾을 수 없다면 더 많은 회개와 더 많은 말씀 읽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하여금 악한 영을 쫓아내게 하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선포문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이 선포문을 읽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거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3. 거주단계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 온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짓게 되면 귀신이 거주하게 됩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엔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봐야 합니다. 거주단계에 있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기자신이 귀신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지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음란의 영이 거주한 사람은 음란의 영이 활동할 때에 갖가지 음란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술 중독의 영이 거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자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 사람

을 통제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여간 해서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합니다. 내적치유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주단계의 귀신을 내 쫓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내적치유자는 거주단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어 앉아 집을 짓고 있는 귀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의 성질만 돈구는 역할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성령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아 물러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사역자에 의해 비록 그 삶 안의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다시금 떠난 귀신이 또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오히려 떠난 귀신이 더 큰 귀신 떼와 함께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 12: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 12: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 묶임단계

우리 안에 거주한 귀신은 완전히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합니다. 성

경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귀신들림”이라고 말하거나 “사로잡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묵임단계에 놓이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통제뿐만 아니라 죄 인식마저 못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속 모양은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력한 성령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쉽게 귀신을 쫓아 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 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귀신들은 성령님의 권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빠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옛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은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집으로 바뀌었을 것이니까요.



11장

/

질병과 귀신과의 관계

성

경은 질병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질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질병은 대부분 귀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질병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마 8: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눅 6: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질병이 귀신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질병을 치유하실 때 귀신도 함께 쫓아내신 사실을 통해 질병과 귀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두 가지 것이 함께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입니다.

“[마 8: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짴어지셨도

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라”

‘연약한 것’은 ‘질병’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연약한 것과 질병이 서로 많은 연관관계가 있을지라도 적어도 성경에서는 ‘연약한 것’과 ‘질병’을 매우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약함’을 치유하셨고 ‘질병’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로 질병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연약함에 의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귀신에 의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약함으로 갖게 되는 질병입니다. 예를 들면, 좋지 못한 공기를 마심으로 생기는 질병이나 좋지 못한 물을 먹음으로 생겨난 질병 등을 말합니다. 좋지 않는 환경에서 생겨난 질병도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 외의 질병은 모두 귀신에 의해 생겨난 질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선천적인 연약함이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질병에 걸린 사람을 모두 귀신에 의해 생겨난 질병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차례 ‘연약한 것’과 ‘질병’을 구분하여 기록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10: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귀신에 의해 생겨난 질병 외에 선천적인 영향과 환경적 영향에 의해 생겨난 질병의 차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병을 구분하여 치유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귀신에 의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병자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쓰인 단어가 ‘연약한 질병’을 뜻하는 <아스테네이아>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요 5: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요 5: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 러라[요 5: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한 눈에 보게 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행 10:38]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연약함으로 질병을 얻은 자들을 치유하신 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 외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거의 대부분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받으신 권세를 부어주셨습니다.

“[마 10: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16: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 시더라”

축사방법





12장

/

주님은 축사를
어떻게 하셨나?

예 수님은 축사사역에 대해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축사사역을 행하셨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축사사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축사사역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짓밟는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은 일찌기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의 근본인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그는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는 곧 마귀로부터 해방됨을 뜻합니다.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죄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이 '마귀'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심어놨습니다. 마

귀는 이것을 '덧'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심어 놓은 '덧'에 걸려져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세상의 죄악들이 모두 마귀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예수님의 축사 방법

예수님의 축사사역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축사사역을 행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1. 꾸짖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들의 권세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귀신보다 더 약한 자가 귀신을 꾸짖을 때 오히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두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들 중 많은 무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여 귀신들을 많이 쫓아 냈습니다. 하도 바울의 능력이 많다보니 어떤 마술사는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바울의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귀신들에게 낭패를 본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 19:14]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행 19:15]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행 19: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만일 당신이 주님의 권세를 가졌다면 귀신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 권세를 부여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담대하게 귀신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귀신이 당신 말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막 9:25]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막 9:26]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 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 잡잡하라

성령의 불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던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심하게 떠들기도 하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마귀 뛰는 사람도 있고 이리 저리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에게 해

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귀신들의 활동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이내 곧 잠잠하였습니다.

"[눅 4:34]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눅 4:3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은 귀신들이 떠드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보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영적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렇게 되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

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
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미 귀신들은 하늘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
다.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온 귀신
들이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
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예
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
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더이상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 떠드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귀신은 "나는 당
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주님은 당장에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명하셨습니다.

"[막 1: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막 1:24] 나사렛 예수여 우리
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
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이다 [막 1: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축사사역을 하다보면 심하게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내에 존재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비밀스러운 내용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신들이 지껄이는 내용들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지껄이는 소리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말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때문에 귀신들이 심하게 떠드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심하게 떠드는 귀신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그 명령에 따라 잠잠해집니다. 이는 권세있는 자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축사사역을 하는 사람은 권세있는 사람입니다. 축사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행하기 때문에 귀신이 축사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3.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귀신들의 정체를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이름이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귀신의 이름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모의 성을 따서 사용하지만 귀신들의 이름은 자신의 특화된 전문 영역에 따라 이름이 만들어집

니다. 우울한 영은 우울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며 자살의 영은 자살하게 만드는 특화된 임무를 띄고 있어서 그런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자신의 특화된 임무에 따라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의 귀신들린 자에게 나아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귀신들린 사람의 이름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눅 8:30]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었던 귀신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반응하였습니다.

"군대라"

저들의 이름이 군대인 까닭은 한꺼번에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두 귀신이 아니라 수천 이상의 귀신이 떼거리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 두 귀신만 들어 있어도 사람이 괴로운데 수천 이상의 귀신이 들어 있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축사사역을 하다보면 귀신의 정체를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귀신과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귀신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귀신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귀신은 결코 자신의 정체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귀신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짓말장이입니다. 귀신이 이처럼 거짓말을 잘 하는 이유는 귀신들의 아버지인 마귀가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입니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만일 당신이 귀신의 정체를 묻게 될 때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불쌍한 척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정보를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착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매우 쉽게 귀신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귀신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귀신에 붙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귀신의 정체를 물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가 우울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우울증에 시달려 고통을 받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면 그만큼 치유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군대'라는 귀신의 정체를 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군대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고 곧 바로 귀신들린 사람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눅 8:32]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눅 8: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4. 나가란

축사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과 타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귀신을 달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귀신을 약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다 확실한 축사사역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사역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고 선포할 때 귀신은 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빨리 나갈 수도 있고 늦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기 싫어하니까요. 한번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집을 짓고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와 거주하게 된 귀신은 어떻게 하

든지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명령할 때 나간다고 말은 하지만 곧 바로 말을 듣는 귀신은 별로 없습니다. 나간척하다가 이내 곧 들어와 숨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사역은 한번으로 끝내서는 안됩니다. 가급적 정기적으로 축사사역을 받아야만 보다 온전한 치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지니신 분이셨기에 "나가"라고 선포하신 말씀에 귀신들은 곧바로 반응하였습니다.

"[눅 4:35]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순순하게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화를 버럭내고 집을 뛰쳐 나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빠져 나갈 때 가급적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거나 넘어 뜨리면서 나옵니다. 이는 반항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칫 잘못하면 귀신들린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귀신 스스로 빠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몰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귀신 스스로 그 자리를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워킹위드바이블에서는 귀신 스스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방법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불로 귀신의 집을 태우는 것입니다. 일단 성령의 불로 귀신의 집을 태우게 되면 귀신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되어 그곳에 있을 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귀신의 집이 성령의 불에 의해 태워지고 나면 귀신도 그곳을 맘에 들어하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집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그 사람에게서 나올 귀신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귀신의 집이 태워짐과 동시에 귀신에게도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귀신은 성령의 불이 뜨거워 자신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어쩔 수없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치유법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에 의해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귀신과 강제적으로 보따리를 싸고 나가는 귀신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축사사역자들은 성령의 불을 통한 축사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로 축사하는 경우 여러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이 자연스럽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떠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

성령의 불로
축사하라

죽

사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태우는 능력이고 둘째는 빛을 내는 능력이며 셋째는 또 다른 불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내 우리 속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은 안수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하지만 꼭 안수에 의해서만 성령의 불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심령 안으로 임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단순히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골방기도를 통해 더욱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태우는 능력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이며 마귀는 세상을 통해 우리 심령을 더럽힙니다.

마귀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악한 쪽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정욕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활동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은 '수면욕' '성욕' '식욕'과 함께 '명예욕'이나 '성취욕'같은 여러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욕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행복하게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성욕이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으니 식욕도 중요합니다. 성취욕이나 명예욕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나가는데 한 몫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들을 가리켜 "모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나쁜 길로 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수면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성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의 아내를 탐하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식욕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식욕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몸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성취욕과 명예욕은 옳지 못한 업적을 쌓으려 애를 쓰게 하거나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의 혼의 영역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의 영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혼의 영역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혼의 영역은 세상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인식'의 영역은 오히려 세상을 알아가는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감정'의 영역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의지'의 영역은 세상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과 혼의 영역을 사로잡기 위해 귀신을 투입시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틈'을 찾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틈이라도 발견되기만 하면 귀신은 금방 그 틈을 이용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는 첫번째 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틈은 큰 틈이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귀신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이 틈이 될 수 있습니다. 괜한 짜증이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오고가다 스쳐지나가는 사람으로 인해 기분나쁜 감정이 틈이 됩니다. 거짓말이 틈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틈이 됩니다.

이러한 틈을 통해 귀신은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진을 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평생 망가뜨리기 위해 아예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이왕이면 친구를 불러옵니다. 친구들과 끼리 함께 거해야 좋은 것은 귀신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렇

게 친구들을 불리와 함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단 둘이서 오붓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귀신과 셋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셋이 살다보니 욕신각신 싸움이 많습니다. 짜증도 많고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매사에 기운이 없으며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은 당신 속에 살고 있는 귀신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마귀에게 붙잡혀 병들어 버린 욕신에 들어가게 되면 그릇되이 행한 모든 옳지 못한 행동들이 바로 세워짐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수면욕이 없어지고 성욕이나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성취욕이나 명예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되살아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헌신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성령의 불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모든 마귀에게 사로잡힌 나쁜 것을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에 의해 귀신들이 지어놓은 집이 태워지면 귀신들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갈 곳이 없어지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할 때 보다 쉽게 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내는 능력

귀신들이 떠나갔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치유의 광선뿐입니다. 주님은 모든 질병의 치유자시며 상처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빛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빛에 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넓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로 인해 금새 어두움은 없어집니다. 불은 이처럼 빛을 내며 그 빛을 통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서 밝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발할 때 치유가 급속히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일단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성령의 불이 빛으로 변화될 때 그 빛이 우리의 모든 병균을 파쇄시킬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악한 것을 태웠다면 치유의 광선을 통해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령의 불은 안수, 말씀,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은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이 강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골방기도를 드리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워킹위드바이블에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막기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성령의 불을 받게 합니다. 지성소에서 드러지는 언약궤기도는 보다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게 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당신의 심령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당신의 심령에 채워질 때 당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다른 불을 만드는 능력

성령의 불은 또 다른 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한번의 감기약을 먹어서 그 감기약이 평생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팔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약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복용해야합니다. 한번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부르다고 해서 영원히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한 번 받기만 하면 영원히 그 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권고하였습니다.

"[살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1Th 5:19]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NIV]

많은 사람들에게 즐겨 읽혀지고 있는 New International Vision(NIV)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라 권고한 것은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을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만 않으면 영원히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불은 또 다른 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불은 더 이상 커지지도 않을 것이며 언제 꺼질지 위태로운 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스스로 또 다른 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성령의 불은 스스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불의 실체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커져가는 성령의 불로 인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은 계속적으로 커져감으로 인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 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4장

/

주님은 보혈로
축사하라

성의 불이 악한 세력을 대항하는 실체라면 주님의 보혈은 막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귀신이 빠져 나간 자리를 보혈로 매꿔줍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매꿔진 자리는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이 덮혀진 곳에는 그 어떠한 귀신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축사사역은 주님의 보혈과 함께 해야 하며 모든 축사사역의 시작과 끝은 주님의 보혈이 함께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명하셨습니다. 양의 피는 곧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떤 장자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사람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

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
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
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
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입니다.

워킹위드바이블에서는 모든 모임과 훈련마다 주님의 보혈을 뿌
리면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배
때에도 빼놓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적
이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는 예전에만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주
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
납니다.

워킹위드바이블의 사람들은 날마다 몸에 예수님의 피를 묻힙니
다. 마치 대제사장이 언약궤 사방에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함을 얻
었듯이 우리들도 기도할 사방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한
의식은 성경적이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
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의식에
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느낌을 당신도 느껴야만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실 사방에 피를 뿌린 후 몸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때때로 아예 예수님의 피를 온 몸에 바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면 기도의 힘이 커짐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마다 마귀의 방해는 떠나가고 없습니다.

보혈로 치유하라

LA에서 치유집회를 인도했을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영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게 하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먼저 저는 성도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젯거리를 다 드러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문제들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파도처럼 몰려 오는 것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문제가 사라지도록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

도들은 얼마간의 시간동안 마음 속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향해 "주님,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시 성도들에게 다시금 문제들이 몰려 오는 것을 느끼라고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사라질 지어다"라는 선포를 마음 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성도들에게 다시 문제들을 생각하라고 했고 이제는 몰려 있는 문제들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 속으로 문제들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도들에게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성도 모두가 한결같은 답을 했는데 주님의 보혈을 뿌렸을 때 문제가 가장 많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했던 것은,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내게 똑 같은 실험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세가지를 실험했을 때 저 역시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보다 더 강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

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혈을 통해 악한 세력이 떠나간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악한 영들은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많이 뿌린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귀신들린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면 매우 빠르게 축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귀신들이 주님의 보혈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활동할 때 가시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던가 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던가 갑자기 발작하는 경우는 귀신들이 활동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하지만 꼭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귀신의 활동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확실하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상만 보고 선불리 판단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낳게됩니다.

사역을 하다보면 종종 귀신이 배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의 배에서 태아가 움직일 때 배가 불쑥 튀어 나오거나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움직임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귀신이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불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귀신을 태우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귀신을 없애기 위해서 배를 누르면 귀신은 금새 다른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배에서 움직이던 귀신이 갑자기 가슴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구리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귀신의 움직임을 보는 것은 축사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은 배가 움직이는 것을 가장되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꿈틀거리면 이내 사람들은 귀신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역자들이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정작 쫓겨나가야 할 귀신은 다른 곳에 숨어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숨어 있는 귀신을 태워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게 되면 마치 달아나려는 짐승에게 올라미를 씌우는 것과 같아서 더 이상 귀신이 꿈쩍달쭉도 못한채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령의 불과 주님의 보혈은 합동작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방패역할을 해 줍니다

한 번 빠져나간 귀신은 이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집을 못내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마 12: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 12: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다시 들어오려는 귀신을 막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불과 주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충만케 하여서 빈 틈이 없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전에 귀신들렸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러한 흔적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시멘트로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구멍나고 흠이 난 곳을 시멘트로 바르면 빈 틈도 없을 뿐더러 이전에 어떠한 곳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더 이상 악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악한 귀신들에게는 매우 고약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피의 냄새는 우리가 맡아도 역겨운 냄새입니다. 하지만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참을 수 없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주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성물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뿌려진 짐승의 피는 모두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 8:1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처럼 주님의 피는 거룩하게 해 줍니다. 짐승의 피가 성물에 발라질 때 성물이 거룩해졌듯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발라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면서 성막의 성물마다 피를 뿌리게 하셨는데 이는 피를 통해 죄가 속해지기 때문입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

느니라"



15장

/

축사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

죽

사사역을 하다보면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여러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남을 보게됩니다. 귀신들린 사람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행동하는 귀신들린 사람을 깔봐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들린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내재하고 있는 귀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 지 모릅니다. 아주 연약한 소녀에게서도 엄청 큰 소리가 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큰 소리를 질러 맵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르셨을 때 그곳에 있는 귀신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당장에 나오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막 1: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빠져 나올 때 귀신들린 사람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 빠져 나올 때에도 이처럼 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낼 수 없는 회귀한 소리를 내거나 매우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대부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미쳐서 그런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이러한 증상의 대부분은 모두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도 귀신들린 어린아이가 치유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어찌나 심하게 했던지 마치 그 아이가 죽은 것같이 될 정도였습니다.

"[막 9:26]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러한 귀신들의 반응은 비단 예수님의 축사사역뿐만이 아니었

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을 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도 귀신들이 떠나갈 때 큰 소리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 8: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사납습니다

귀신은 성향이 사납습니다.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인격수양이 덜 된 사람도 화가날 때에는 사납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짐승과 같아서 "짐승같은 놈!"이라고 불리웁니다. 귀신은 인격수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사납습니다. 가만히 놔둘 때는 괜찮지만 건들면 사납습니다. 짐승도 건들지 않으면 좀처럼 물지 않지만 누군가 건들거나 배가 고플때는 사납게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몹시 사나워졌습니다. 평소에도 사나워서 그 지방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지 못했을 지경이었으나 예수님

을 만난 저들은 더욱 사나워졌던 것입니다.

"[마 8: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더라"

치유사역을 하다보면 매우 사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로 사나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약간만 신경을
건들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 같은 자세로 사나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이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수를 하다보면 갑자기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성령의 불에 반응을 하다보니 갑자기 사나
워진 것입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는 매우 얌전한 부인이었는데 안
수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짐승처럼 사나워진 것입니다. 웬
만해서는 그 누구도 근처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나워지는 경
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의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들린 아이를 데려왔었는데 더러운 귀신 그 아
이를 자극할 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막 9: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이처럼 귀신들린 사람의 경우엔 여러가지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데 심할 경우엔 거꾸러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로 나자빠지기도 하며 이를 갈며 마치 짐승처럼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9:20]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몸을 상하게 합니다

치유사역을 할 때 종종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불안해 하는 눈빛으로 심하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서 매우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떠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귀신이 성령의 불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성령의 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들어갈 때 귀신들린 사람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굴데굴 구르기도 합니다. 사방을 구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도 귀신이 반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린 사람의 경우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막 1: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활동할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럴 때는 한동안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한동안 가만히 놔두면 이내 귀신도 힘이 빠져서 그 활동이 수그러 집니다.

"[막 9:18]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화가 날 때에는 귀신들린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귀신은 귀신들린 사람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학대케 합니다. 어떤 귀신은 자살하도록 충동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귀

신은 귀신들린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막 9: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
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
기사 도와 주옵소서"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귀신들린 사람의 경우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
고 해서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모두가 귀신때문은 아닙니다. 정
신분열증세를 가져다 주는 원인은 귀신이 아니더라도 많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귀신에 의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정상적인 사람과 다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지 모르게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져 있거나 자
신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없는듯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런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계산도 하지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치유사역을 하다보면 눈동자가 흐리거나 초점이 없는 사람이 있

습니다. 그런 경우엔 거의 귀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역자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적잖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

효과적인 측사방법

보다 효과적인 축사사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사사역을 잘못하게 되면 귀신들린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축사사역자도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축사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축사사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축사사역자들에 대해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사사역을 행할 때 그러한 문제는 사라질 것이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축사사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워킹위드바이블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축사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위한 준비단계

효과적인 축사사역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귀신들린 사람을 붙잡고서 축사사역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축사사역을 위해 기본적인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1. 마음의 문을 열게 하라.

효과적인 축사사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의 마음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지라도 닫혀진 문은 여간해선 쉽게 열 수 없을 정도로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린 사람은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저들은 주로 어두운 곳에 거하며 방 안에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사역 현장으로 이끌고 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려 통제를 받고 있는 단계에 속한 사람의 경우엔 치유사역 현장까지 나오기가 힘이 들지만 비록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심할 정도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의 경우엔 치유사역 현장에 오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서 치유사역 현장에 온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 속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치유사역 현장에 왔다가 엉겁결에 축사사역을 받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축사사역을 받고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사사역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귀신과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귀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방법에는 '찬양'이 매우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찬양만 불렀는데도 귀신이 반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찬양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 주님의 보혈을 뿌리라.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현재 있는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만일 그곳이 가정집이라면 가정 곳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 장소가 보다 정결하고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축사사역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소가 정결하고 거룩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한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렸다면 그 다음엔 육신에 보혈을 뿌리십시오. 머리 끝부터서 발끝까지 보혈을 뿌리십시오.

'머리 - 얼굴 - 어깨 - 가슴 - 배 - 하복부 - 무릎 - 발' 순서대로 뿌리십시오. 머리에 뿌릴 때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

게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얼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깨에는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슴에는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과 의지로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배에는 모든 세상의 정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복부에는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무릎에는 모든 뼈와 관절에 하나님의 힘과 생기가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발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3.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뿌린 후에는 방언기도와 함께 강력한 회개기도를 드리십시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회개없이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내 곧 더 악한 상태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회개는 상한 심령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단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간절한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회개할리가 없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4. 십자가 설교를 전하십시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는 십자가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
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축사사역을 위해서는 십자가 설교가 필요합니다.

5. 안수 하십시오.

안수를 통해 성령의 불이 귀신들린 사람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에 반응하는 귀신들은 여러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데굴데굴 구르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반응을 할 때 귀신을 향해 꾸짖거나 떠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그냥 잠잠히 성령의 불을 전이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축사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잠잠히 안수를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향해 꾸짖고 나가라고 선포하는 경우엔 이내 또 다시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경우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는 자신보다 더욱 강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마 12: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마 12: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마 12: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듯 귀신을 꾸짖고 선포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내 보낸 귀신은 자신이 거했던 장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전에 거했던 장소에 다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될까봐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귀신들린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전하는 안수를 통한 축사사역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 귀신이 거한 집이 태워지고 귀신 역시 성령의 불이 뜨거워 스스로 항복하며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귀신을 내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귀신 스스로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불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다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통해 성령의 불이 전이가 될 때 한 번 들어간 성령의 불은 스스로 불을 만들어내면서 더욱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축사사역을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치유사역센터에 와서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워킹위드바이블은 여러 지역에 워킹위드바이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들어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결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이렇게 안수를 통해 성령의 불을 전이받고 축사를 받아 깨끗해진 사람은 지속적으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결과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만이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이 더러워

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귀신은 깨끗한 곳을 싫어합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귀신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귀신은 항상 더럽습니다.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더러운 사람은 귀신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축사사역자의 자세

축사사역을 하고나면 축사사역자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이 빠져 나가면서 축사사역자에게 피해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나타나는 상처는 '더러움'입니다. 귀신의 더러움이 축사사역자에게 묻게 됩니다.

귀신의 더러움을 통해 성적인 유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축사사역을 하고 난 후에 치유사역자에게 성적으로 유혹받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간음의 영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사사역자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사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담대했는데 축사사역 이후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면 '왜 내가 이런 축사사역을 해야하지?'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모두 귀신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축사사역자의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축사사역자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사사역 이후에 갑자기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정결의식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끼리 서로에게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혼자서 축사사역을 했을 경우엔 스스로 주님의 보혈을 뿌리면 됩니다. 언뜻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효과는 만점입니다. 이렇게 마치 옷의 먼지를 털듯이 주님의 보혈을 온 몸에 뿌려주면 귀신의 영향력에서 말끔히 해방됩니다.

어떤 축사사역자는 특하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역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보다는 잘못 사역하다가 귀신의 안 좋은 것이 자신에게 묻을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축사사역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나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축사사역자는 큰 일을 못합니다.

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앵무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문둥이를 만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둥이를 만진다는 것은 곧 내가 문둥이가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문둥이를 만지셨습니다. 겁이 많아서 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때문입니다. 문둥이조차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축사사역을 함으로써 그 어떠한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축사사역을 행할 때 오히려 악한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축사사역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축사사역은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귀신들린 사람을 끌어안고 우는 당신의 모습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사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7장

/

귀신의 영향 측정표

귀신의 영향 측정표

다음 측정표는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귀신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에 수많은 귀신의 다른 영향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주로 나타나는 귀신의 영향을 참조하여서 제작한 것이니 이 측정표를 통해 얼마만큼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측정표는 각 개인이 사용할수도 있으며 사역자들이 치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표는 가급적이면 자주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귀신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영원히 좋은 점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틈틈히 이 측정표를 사용하여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약간 느낀다					아주 강하게 느낀다				
0	1	2	3	4					
(질문을 읽고 적절한 번호를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표시하세요. 그런 후에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영적인 증상									
0	1	2	3	4	무섭고 두려운 꿈을 꾼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서운 것들이 엮이는 꿈을 꾼다.			
0	1	2	3	4	귀신이 보인다	자신 혹은 다른 사람, 사물에 붙어있는 귀신이 보인다.			
0	1	2	3	4	사물의 속과 뒷부분을 볼 수 있다	갑자기 사물이 투명하게 보여 속과 뒷 부분을 볼 수 있다.			
0	1	2	3	4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느낀다	누워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나를 떠나서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다.			
0	1	2	3	4	풍수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	갑자기 풍수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들어와 나도 모르게 좋은 명당자리를 알게 된다.			
0	1	2	3	4	내 속에 또 다른 인체체를 느낀다	내 안에 누군가 들어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0	1	2	3	4	점을 칠 수 있다	귀신의 영향력으로 점을 치는 신통력이 생긴다.			
0	1	2	3	4	귀신이 나타나는 꿈을 꾼다	꿈에 귀신같이 생긴 사람이나 실제로 귀신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귀신이 나타난다.			
0	1	2	3	4	잠을 잘 자지못한다	낮잠을 자지 않았고 커피도 마시지 않았는데 도무지 잠을 잘 잘 수 없다.			
0	1	2	3	4	잠잘 때 가위눌림을 경험한다	잠을 잘 때 누군가 내 목을 조르거나 어떤 압력으로 가위눌림을 당한다.			
0	1	2	3	4	수액을 찾는 감각이 생겼다	물이 있는 곳에 손이 떨리거나 몸으로 감지된다.			
혼적인 증상									
0	1	2	3	4	설교를 들을 때 집중이 되지 않는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설교만 들으려 하면 집중이 안된다.			
0	1	2	3	4	설교를 들을 때 졸음이 온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설교를 들을 때 졸음이 온다.			

0	1	2	3	4	생각이 복잡하다	늘 내 머리는 쉴 날이 없다.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0	1	2	3	4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특별히 화낼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전 같으면 쉽게 분노가 삭히는데 내 의지와는 달리 여간해서 분노가 가라앉히질 않는다.
0	1	2	3	4	찬양부르는 것이 싫다	평소에 찬양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찬양부르는 것도 싫고 찬양 듣는 것도 싫어진다.
0	1	2	3	4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특별히 슬픔이 심한 것도 아니고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다.
0	1	2	3	4	위험을 느낀다	내 속에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는 느낌을 갖는다.
0	1	2	3	4	너무 지나치게 눈물이 많다	특별히 울 이유도 없는데 그냥 우는 경우가 많다. 약간의 심한 말이나 약간의 좋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나도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0	1	2	3	4	성교하는 장면이 자주 떠오른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과 성교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는다. 배우자와의 성교장면이 떠오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0	1	2	3	4	과거가 자주 생각나고 현재가 싫어진다	갑자기 과거의 일이 자주 생각이 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거나 과거가 좋았다고 느껴지면서 현재를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한다.
0	1	2	3	4	과거의 사겼던 애인생각이 자주 난다	갑자기 과거의 사겼던 애인 생각이 자주 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한다. 지금 배우자가 그런 생각들때문에 점점 싫어진다.
0	1	2	3	4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특별히 나쁜 상황이나 두렵게 하는 상황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두려워져서 심한 두려움에 공포를 느낀다.
0	1	2	3	4	주위사람들이 미워진다	갑자기 잘못된 것도 없는데 주위사람들이 골보기 싫어진다. 특별히 배우자가 갑자기 미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0	1	2	3	4	슬픔과 우울함이 있다	괜시리 슬퍼지고 우울한 마음이 너무 깊어져버렸다.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진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0	1	2	3	4	도망가고 싶거나 어디론가떠나고 싶다	현재 속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가족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0	1	2	3	4	기뻐다 슬펐다 하는 증상이 왔다갔다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쁨과 슬픔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10초 간격 혹은 1분정도의 간격으로 "하하하" 웃었다가 "흑흑흑" 우는 것을 반복한다.
0	1	2	3	4	심한 자기비하 생각이 든다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 "너는 안돼"라든지 "너같은 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어"라는 자기비하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약간의 자기비하는 괜찮지만 너무나 심한 자기비하가 있거나 이런 자기비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육적인 증상						
0	1	2	3	4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한다	갑자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할 때가 있다.
0	1	2	3	4	눈이 뒤집힌 적이 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위로 뒤집어 올라간다.
0	1	2	3	4	가끔 짐승의 소리를 내기도 한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짐승처럼 행동하거나 짐승처럼 소리를 낸다.
0	1	2	3	4	몸을 심하게 떠다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소름끼쳐 몸을 부르르 떠다. 내가 떠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0	1	2	3	4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나도모르게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특별히 목사나 사역자의 눈을 마주치 못하겠다.
0	1	2	3	4	눈에 초점이 없고 멍해진다	나도모르게 멍해지거나 사물을 바라볼 때 눈에 초점을 잃어진다.
0	1	2	3	4	아무 것도 하기 싫어진다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아무 것도 하기 싫어진다. 일어나는 것도 싫고 밥먹기도 싫다.
0	1	2	3	4	짜증을 심하게 낸다	별일 아님에도 누군가를 향해 심하게 짜증을 낸다. 짜증내기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오래가며 며칠씩 지속된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짜증을 낸다.
0	1	2	3	4	몸의 통증이 이곳 저곳 옮겨진다	몸에 뭔가 들어있는듯 하고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그것이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닌다.
0	1	2	3	4	몸에 딱딱히 굳어진 부분이 있다	몸의 어느 특정한 부위가 갑자기 딱딱해졌다. 그곳을 누르면 매우 아프다.
0	1	2	3	4	역겹고 토할 것 같다	특별히 잘못 먹은 음식도 없고 임신한 것도 아님에도 역겹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
0	1	2	3	4	몸이 뒤틀릴정도로 몸이 흔들린다	나도모르게 어떤 상황에서는 몸이 심하게 뒤틀리며 상상할 수 없을만큼 몸이 휘어질 때도 있다.
0	1	2	3	4	머리가 심하게 쥐어짜는듯 하다	뭔가 머리를 끈갈은 것으로 묶는것처럼 심하게 쥐어 짜는 느낌이 있다.
0	1	2	3	4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편두통이다. 머리가 수시로 자주 지끈거리며 약하기도 하고 심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머리가 아프다.
0	1	2	3	4	손과 발이 굳어서 잘 움직일 수 없다	갑자기 손과 발이 굳어서 잘 움직일 수 없다.
0	1	2	3	4	너무 심하게 졸음이 온다	평소와는 달리 졸음이 너무 많이 온다. 졸음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0	1	2	3	4	호흡이 거칠어지고 급해진다	성령의 기름부음때 호흡이 빨라지고 격해지는 증상과는 달리 매우 불안하고 안정부절하지 못하면서 호흡이 거칠고 급해지는 증상이 있다.
0	1	2	3	4	소름을 느끼거나 싸늘한 느낌이 있다	특별한 장소나 상황이 아님에도 갑자기 소름을 느끼거나 온 몸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며 매우 기분이 사악한 느낌때문에 좋지 않게 된다.
0	1	2	3	4	술이나 담배, 마약을 다시 취하고 싶어진다	술,담배,마약 등 좋지 않는 음식을 끊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취하고 싶어져 도무지 참을 수 없다.
0	1	2	3	4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0	1	2	3	4	주변사람을 때리고 싶다	갑자기 주변 사람을 때리고 싶어진다. 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고 싶어진다. 그럴 수 없을 때 나를 구타한다.
0	1	2	3	4	사람을 죽이고 싶어진다	살인의 충동을 느낀다. 실제로 살인하려고 준비하기도 한다. 살인을 시도한 적도 있다.
0	1	2	3	4	주변사람을 확대한다	가족 중 특정한 사람을 못하게 굴며 심하게 확대한다. 남자의 경우엔 아내를 못살게 굴며 확대한다. 자녀의 경우엔 동생이나 여동생을 확대한다. 직장상사의 경우엔 부하직원을 확대하며 동료들을 확대한다.
전체 점수는 몇점?						

나의 귀신의 영향력은?	180점 이상	귀신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의 마귀에게 복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사역자가 당신을 도울 것이니 최소한 1년 이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140~179점 이상	귀신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사역자에게 나아가 안수를 통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치유를 받아야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겁니다.
	100~139점 이상	귀신이 내 안에 침투하여 거주하려는 중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지은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를 태워달라 간구하시며 주님의보혈을 모든 죄에 뿌리십시오.
	30~99점 이상	귀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모임과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영적충전이 필요합니다.
	30점 이하	귀신이 내게 알찡거리지도 못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귀신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초판발행 2014. 2. 6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등 록 제C-2013-018611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909-8844(손에스터목사)
홈페이지 www.WalkingWithBible.com / www.LivingWaterChurch.co
이 메 일 mail@walkingwithbible.com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학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회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의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버전 있음)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